

제429회 국회
(정기회)

국방위원회 회의록

제 4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9월29일(월)

장 소 국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합동참모의장후보자(진영승) 인사청문요청안
2. 합동참모의장후보자(진영승)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025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4.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5. 현안보고

상정된 안건

1. 합동참모의장후보자(진영승) 인사청문요청안 1
2. 합동참모의장후보자(진영승)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1
3. 2025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2
4.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3
5. 현안보고 5

(14시05분 개의)

○위원장 성일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429회 국회(정기회) 제4차 국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 녹화 중계,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가 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우리 위원회는 지난 24일 2025년도 국정감사계획서를 채택하고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청문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국정감사 관련 안건을 처리한 후 현안보고를 받는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합동참모의장후보자(진영승) 인사청문요청안

2. 합동참모의장후보자(진영승)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14시06분)

○위원장 성일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합동참모의장후보자(진영승) 인사청문요청안과 의사일정 제2항 합동참모의장후보자(진영승)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위원회는 지난 24일 진영승 합참의장후보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기 위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했습니다. 이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관해 의논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 간사님들과 협의를 거쳐 작성한 경과보고서(안)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보고서(안)은 인사청문 활동 경과와 주요 질의, 답변 요지 및 종합의견 등으로 구성했습니다.

배부해 드린 경과보고서(안)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시면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이견이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경과보고서(안)의 내용과 같이 합참의장후보자(진영승)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경과보고서의 자구 수정과 참고자료의 첨부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 2025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14시07분)

○위원장 성일종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국정감사 계획에 따라서 감사 대상 기관으로 하여금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할 것과 위원님들의 서류제출 요구서에 따라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정감사와 관련된 서류제출 요구는 국회법 제128조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서 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서류제출 요구서가 제출 요구일 7일 전에는 해당 기관에 송달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까지 위원님들께서 신청하신 서류제출 요구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의결 이후에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위원님들께서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서류제출 요구일 7일 전까지 수감기관에 도달이 가능한 서류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의결된 것으로 보아 해당 기관에 송부하도록 하여 위원님들의 국정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강선영 위원 위원장님, 제가 자료 요구 관련해서 드릴 말씀 있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강선영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 육군총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7월 24일, 8월 29일, 9월 8일, 9월 15일, 이렇게 네 번에 걸쳐서 육군 체력단련장 관리사장 채용에 관한 심의자료를 요구했는데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제출이 제한된다고 그래서 '그러면 개인정보에 대한 건 다 가리고 제출해 달라' 그렇게 제가 그쪽에 요구했더니 다시 '면접관이 지원자를 계량적 수치로 평가한 자료는 안 된다'고 그래서 '그 내용도 가리고 제출해 달라' 이렇게 했는데 제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11명이 특정 골프장에 지원했는데 그중에 골프장 관련한 자격증이 하나도 없고 상훈 점수가 제일 낮은 사람이 채용됐어요. 이걸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또 다른 제보가 있어서 이걸 확인하려고 현재 13개의 체력단련장 관리사장 채용했던 심의자료를 개인정보 내용 빼고, 평가했던 면접점수 빼고 제출해 달라는 데 제출 안 하는데 말씀하신 기한 내에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이걸 해서 누구를 망신 주거나 그렇게 하려는 게 아니라 원칙이 있어야 육군도 명예스럽게 전역하신 분들이 정당한 절차에 의거해서 채용됐다고 저도 말씀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계속적으로 제보가 들어옵니다. 이 자료를 꼭 기한 내에 제출해 달라고 인사사령부에 꼭 강조해 주십시오.

○육군참모총장직무대리 김규하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잘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총장님, 그렇게 중요한 자료가 아닌데, 기밀사항도 아닌데 왜 그런 것 제출을 안 해요?

○육군참모총장직무대리 김규하 제가 다시 확인해 가지고 전향적으로 재확인해서……

○위원장 성일종 아니, 전향적 사항이 아니에요. 지금 국회에서 요구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빼고 이러면 안 돼요. 대신 개인정보니 이름을 가려도 좋다 이렇게 요구를 하잖아요. 자력만 달라는 거잖아요?

○육군참모총장직무대리 김규하 예.

○위원장 성일종 그러면 개인정보하고 무관하잖아요.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육군참모총장직무대리 김규하 잘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이것까지 포함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25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14시11분)

○위원장 성일종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증인·참고인의 출석 요구는 먼저 기관증인으로 국방부장관, 병무청장, 방위사업청장과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그리고 각 기관 및 부대 소속 주요 지휘자를 해당 기관의 국정감사일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다만 10월 30일 종합감사에는 전 기관이 동시에 수감하는 관계로 주요 기관증인만 출석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오늘 출석 요구된 기관증인이 인사이동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 임명된 보직자가 증인 지위를 승계하는 것으로 하고 공석일 경우에는 부서 내 차상위 직급에 있는 자가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일반증인 및 참고인 관련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신청해 주신 일반증인과 참고인에 대해서 채택 여부를 교섭단체 간사님들과 협의를 했습니다. 이 중 여야 간사님 간에 협의가 완료된 일반증인 3인과 참고인 1인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출석 요구하려고 합니다.

나머지 일반증인과 참고인에 대해서는 교섭단체 간사 위원님들과 좀 더 시간을 가지고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김병주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성일종** 김병주 위원님.

○**김병주 위원** 질문이 있어서요.

지금 일반증인하고 참고인은 이 4인이지요?

○**위원장 성일종** 그렇습니다.

○**김병주 위원** 황성혜 구글코리아 부사장은 왜 증인으로 채택이 된 거지요?

○**황명선 위원** 제가 신청했어요.

○**김병주 위원** 아, 그렇습니까?

○**위원장 성일종** 여당 위원이 신청했으니까 이제 그만하셔도 되지요?

○**김병주 위원** 그 이유가 조금 궁금하네요.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구글코리아와 관련해서 어떤 건지, 정밀지도 반출신청……

○**위원장 성일종** 아마 그것은 위성 자료 때문에, 보안상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신청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종득 위원** 저도 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임종득 위원님.

○**임종득 위원** 지금 일반증인 출석 요구, 참고인 출석 요구 돼 있는데 저도 여러 건을 증인 신청을 했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일반증인 출석 요구에 여당 위원 3명이 한 것만 지금 돼 있어요. 이걸 형평성 차원에서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성일종** 그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게 확정된 게 아닙니다. 우선 간사님 간에 합의한 분들은 채택을 했고 또 종합감사에서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협의를 계속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병주 위원** 지금 합의된 것이 이거란 말이지요?

○**위원장 성일종** 그렇습니다.

그러면 강대식 간사님, 잠깐 양당 간에 합의하신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식 위원** 임 위원님이 증인 채택을 해 달라 하는 것은 단톡방이라든지 각 보좌관을 통해 가지고 수차례 증인 채택을 할 수 있게끔 자료를 제출하라 했는데 자료를 어제 인가 제출해 가지고 벌써 1차 협의가 끝나는 상황에서 임종득 의원실에서 온 것은 아직까지 확정된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여야 간사 간에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위원장 성일종** 간사님께서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받으셔서, 들으셔서 지속적으로 협의해 주시고 필요한 경우는 종감까지 있기 때문에 그때 채택하는 것을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반증인 및 참고인 명단은 끝에 실음)

5. 현안보고

(14시15분)

○**위원장 성일종** 의사일정 제5항 현안보고를 상정합니다.

최근 군부대 내에서 총기사고, 사망사고, 부상 등 사건·사고들이 연이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군부대가 전군 대상으로 정밀진단을 시행기로 한 지 이틀 만에 또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군의 안전관리 지휘체계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국방위원회에서는, 3군 총장님들이 이번에 다 바뀌셨습니다. 새로 부임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군에서 발생한 여러 사건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건들이 다시 재발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지금까지 있어 왔던 사건이나 또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하는 회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야가 함께 국방위원회를 열게 된 것입니다.

3군 총장님들께서 새로 취임하셔서 그동안 업무 파악을 하셨을 거고 특히 국회에서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를 여러 차례 전달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준비하신 것을 소상하게 우리 국민들에게 발표를 해 주시고 또 국민들께서 염려하시지 않도록, 국민 불안하시지 않도록 해야 될 책임이 우리 사령관들에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회의를 빌려서 정확하게 국민 보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득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임종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득 위원** 오늘 국방위 전체회의를 지금 와서 보니까 육해공군 총장, 해병대사령관이 참여를 하고 국방부에서는 전혀 참석을 안 했습니다. 사실 이 전체회의를 하면서 야

당 위원 차원에서 지금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여러 사항들, 특히 통일부장관의 실사격 훈련과 실기동 훈련의 중단을 국방부가 협조하고 있다라는 내용이나 그다음에 NLL상의 북한 상선의 침입 상황 이런 것들을 국방부장관에게 물어볼 게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장관이 어떤 요인에서 안 나왔는지, 만약에 장관이 못 나온다면 차관이라도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오늘 논의를 하겠다고 하는 현안보고 내용이 사고에 관한 겁니다. 육해공군·해병대 사고에 관련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종합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게 국방부고 국방부에서 원인 분석과 대안 자체가 총체적으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논의를 하면서 지금 국방부가 한 명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논의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정회하고 국방부 책임 당국자가 나온 상태에서 재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성일종 부승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승찬 위원 애초에 협의할 때 국방부장관이 없었고요 각 군 총장과 해병대사령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협의 과정, 첫 스타트를 끊을 때 그랬고요.

○임종득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닌데……

○위원장 성일종 아니, 들으시고.

○부승찬 위원 제가 간사입니다, 간사고요. 거짓말 하겠어요, 여기서? 그건 아닌 거고요. 그래서 각 군에서 사건·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일단 총장님이나 그다음에 사령관님이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확인을 하자 그래서 현안보고가 안전사고 위주로 갔던 거고요. 그렇게 일차적으로 협의됐고.

추후에 국방부장관이나 국방부를 부를 거면 그건 종합대책에서 논의해도 되고 그다음에 국정감사가 있기 때문에 국정감사를 통해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얘기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일종 강대식 간사님.

○강대식 위원 애초에 간사 간 협의에서는 국방부가 빠져 있었습니다. 빠져 있었고 차후에 야당 위원님들께서 국방부 관련자를 배석하자, 참석하자 이랬는데 여야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오늘 부득이하게 이렇게 회의가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위원장으로서 한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애초에는 3군 총장님과 또 해병대사령관이 와서, 실질적으로 부대를 지휘하고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그동안 현장에서의 사고의 경위 그리고 재발에 대한 여러 대책, 새로 부임한 분들에 대해서 요구했던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지속적인 사고가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양당 간사 간에 국방부장관이 여기에 나와야 되겠다 이렇게 요청을 한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여당 측에서는 이번에는 실무적인 측면에서 총장들만 하고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국방부장관이 나오는 게 맞습니다. 여러 가지, 해외를 갔다 오고 여러 일정상 꼬인 부분도 있고 어려움이 있는 부분을 이해할 수 있지만 엄중한 이런 상황에서는 국방부장관께서 나오시는 게 맞는데 양당 간의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백선희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성일종 백선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희 위원 저도 오늘 준비를 하면서 각 군에서 사고의 원인을 찾는 것은 당연히 들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중요한 것은 대책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각 군에서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국방부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방부장관님이 개인 일정이 있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차관님이라도 나오셨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러한 계속되는 사고에 대해서 국방부가 안전과 관련된 종합대책이 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오늘 참석을 못 하신다라고 하면 자료 요청이라도 하겠습니다. 안전사고 관련된 국방부의 대책 어떻게 수립되고 있는지 그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우선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고요. 양당 간사님이 장·차관의 일정을 좀 봐서 지금 여야 위원님들 모두가 장관이든 차관이든 중차대한 일이기 때문에 설명을 좀 듣고 싶어 하니까 협의를 하셔서 나오실 수 있는지 체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원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나고 이런 것들이 우리 군의 안전성 그리고 또 우리 군의 전투태세,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매우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또 이번의 사고 유형을 보면 사병 위주가 아니고 오히려 부사관, 대위부터 또 공군 같은 경우에는 매우 중대한 어떤 인재와 그다음에 전투 대비태세, 모두에 결격사유가 있어서 종합적으로 발생한 사건이라는 느낌은 확실히 듭니다.

그런데 국회 일정도 그래도 서로 여야 간에 합의한 대로 진행되고 다음 주, 다다음 주 추석 명절 끝나면 바로 국감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종합감사가 바로 시작되는데 오늘 갑자기 2시간 내에 나와라 이런 것은 조금 과한 것 아닌가, 미리미리 우리가 공지해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그렇게 인식하셨다면 미리미리 공지를 해서 준비하도록 하고 기왕에 차관이 됐든 장관이 됐든 나오시면 충실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해 드리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성일종 이미 이 부분은 양당 간사님들 간에 협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장관이 나오시라고 하는 야당 측의 요구가 강하게 있어서 여당한테 요구를 했고 합의가 안 된 부분입니다.

아마 장관이 무슨 일정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또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니 그러면 장관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 또 차관이라도 나올 수 있는지 짧은 시간에 협의를 한번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김병주 위원님, 그만하시지요.

요 건인가요?

○김병주 위원 예.

○위원장 성일종 그만하시지요.

○김병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오늘 현안보고를 통해서 반복되는 군 사고의 원인과 해결책은 무엇인지 그동안의 조사 경과와 향후 재발방지대책 등을 논의하고 점검하고자 합니다.

먼저 김규하 육군참모총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군참모총장직무대리 김규하 육군참모총장 김규하 대장입니다.

존경하는 성일종 국방위원장과 국방위원님!

국가 안보와 국방 발전을 위해 다양하게 노력해 주시고 헌신하시는 모습과 군에 대한 관심 및 전폭적인 지원에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육군에서 발생한 잇따른 사고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위원님들의 걱정하시는 마음 잘 알고 있습니다. 육군은 이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육군을 대표해서 국민 여러분과 위원님들께 걱정과 근심을 끼쳐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제임 이후 육군의 조속한 안정과 회복을 바라시는 국민적 여망을 잘 알고 있기에 더욱 더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육군은 이러한 엄중한 인식하에 이번 일을 단순히 일회성으로 단기적인 처방으로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걸리더라도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국민과 위원님들께 육군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솔직히 말씀드리고 육군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속도감 있게 혁신하면서 육군의 능력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들은 위원님들께도 지원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방위원장과 국방위원님!

잇따른 육군의 사고를 비롯해서 육군이 최근에 처한 초급간부를 비롯한 중견 간부들에 대한 인력 운영의 어려움은 급여, 근무환경, 인력의 감소, 과업에 대한 부담, 자긍심 저하 등 그 원인이 다양하고 복합적인 것으로 자체 진단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복합적인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의 근원을 보다 투명하고 진솔하게 보여 드리고 육군 구성원이 단결하여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일 때 비로소 회복과 희망의 실마리가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장을 비롯한 전 장군단, 육군 구성원 모두는 혁신적인 소통에 기반한 집단지성의 힘과 단결된 모습으로 육군의 위기를 헤쳐 나가겠습니다. 변화의 활력을 위해 육군 구성원이 작은 변화부터 체감할 수 있도록 총장을 비롯한 장군단부터 솔선수범해서 현장 중심으로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강한 육군, 신뢰받는 육군 구현을 위해 누구보다 군을 아껴 주시는 위원님들과 진솔하게 소통하면서 위원님들의 해안과 정책 제언을 잘 경청하여 육군의 정책에 담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따뜻한 성원과 격려,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인사말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일종 총장직무대행님, 잠깐 서 계세요.

지금 여러 가지 국민들한테 보고를 하셨는데 내가 듣기로는 지금 초급간부들의 급여가 낮고 근무 여건이나 이런 게 상당히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사고의 원인으로 돌리는 것처럼 들려요. 아주 잘못된 얘기입니다. 총책임자로서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부족한 것 다 알고 있고 지금 여야 위원 모두가 초급장교들에 대한 급여에서부터 여러 가지를 개선해야 한다는 걸 아는데 사고 원인이 이것 때문에, 이게 중심이 된 것처럼 보고하시는 건 아주 잘못된 보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초급장교뿐만 아니라 병사까지도 다 나왔잖아요. 여기는 국민들한테 보고하는 자리입니다. 육군참모총장이 나와서 어떻게 급여나 이러한 복지 문제가 있어서 사고가 나는 것처럼 보고하는 게 얼마나 잘못된 줄 아세요, 지금? 그 생각부터 잘못된 거예요. 모

든 걸 새로 점검하세요.

이 부분은 지금 우리 국회에서 예산 과정에서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잘못된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정신 상태에서부터 모든 게 육해공이 똑같은 말이에요. 그 사고 원인부터 해야지 사고 원인이 급여나 복지 문제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정확하게 다시 짚어서 이 부분을 이따 위원님들 질의할 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군참모총장직무대리 김규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들어가시고.

인사참모부장님, 계속해서 보고하실 거지요?

○육군본부인사참모부장 김진익 예.

○위원장 성일종 나와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육군본부인사참모부장 김진익 육군 인사참모부장 김진익 소장입니다.

육군 현안보고 드리겠습니다.

현 상황에 대해서 육군은 최근 사고로 인해서 국민적 우려를 총체적 위기로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관행적 해법에서 탈피하여 근본적인 대안 마련에 역량을 집중하여서 장성단의 현장 중심 진단과 개선안의 시행으로 안전육군의 새로운 활력을 견인해야 될 시기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최근 주요 사고 관련하여서 현재까지 육군은 다음과 같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총기자살 분야에서는 병영 내 복합적인 요인으로 발생하였으나 육군의 예방체계가 다소 미작동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병영 내 부조리가 일부 잔존하고 소통문화 경직 등이 있었고 또 인력 감소 대비 과업의 지속적인 증가로 최하위 세대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었습니다.

폭발효과 묘사탄 폭발과 관련해서는 앞선 여러 가지 유사 사례에 대해서 소극적인 조치와 상급부대 역할 미흡으로 예방의 기회를 상실한 것으로서 육본에서는 위험성 교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대책 마련이 미흡하였고 예하부대에서도 예방교육과 위험성 평가, 현장 확인 등 실질적 노력이 부족한 부분을 식별하였습니다.

무단이탈 및 자살과 관련해서는 장병들의 신상관리 시스템 작동이 미흡하였고 소통문화의 경직이 주 요인으로 작용되었습니다.

종합적 분석 결과 드러난 문제점을 보면 구조적이고 문화적·환경적 요인까지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미흡하여서 사고 발생 시 문제의 본질이 아닌 표면적 현상과 해결에만 집중하였고 특히 병력 부족으로 인한 창끝부대의 피로감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장성단과 상급부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 없이 창끝부대에 모든 것을 일임하고 있는 과오가 있음을 식별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고 발생 이후 육군의 주요 조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고 원인 조사를 위해 민간 경찰과 협업하여서 명확하고 투명한 조사를 진행 중에 있고 해당 부대에 대한 육군 차원의 조사도 병행 중에 있습니다. 유가족분들에 대한 지원과 사고에 노출된 장병들에 대한 PTSD 예방 활동, 부상자 관리 및 전 장병 1 대 1 정밀 신상 파악 등 다각적으로 조치 중에 있으며 전 부대의 총기·탄약 관리실태 점검과 해

당 교탄 사용중지 등 각종 대책을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장성단이 주도하는 안전육군 건설 공감대 형성 및 인식 전환을 위해서 육군 장성단의 역할 토의와 함께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 및 주임원사 회의를 실시하여서 현 상황의 엄중함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근본적 문제점과 해결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를 통해 육군의 사고예방 추진 방향을 설정하였고 3대 핵심 분야를 선정하되 우선조치 과제부터 근본적 변화를 위한 중장기적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육군 장성단의 현장 중심의 활동을 통해 근본적 문제점을 식별하고 가용 범위 내에서 필요한 조치는 신속하게 추진하고 안전문화대혁신TF를 구성하여 종합추진계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장성단 주도하에 인력구조와 병영환경 등 다양한 변화를 반영한 안전한 육군 건설을 위해 구조적이고 문화적·환경적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주요 추진 방향에 맞춰서 육군의 주요 추진 대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전 제대 특별부대진단을 내일까지 시행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치유와 회복에 장성급 지휘관과 참모의 역량을 집중하여서 제대별 2단계 상급부대에서 구조적이고 문화적·환경적 요인까지 면밀히 진단하고 식별된 취약 요소는 육군의 가용 역량을 집중하여 신속하게 조치하고 초과 능력에 대해서는 국회 및 정부 부처와 사회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중장기적으로 개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변화를 위한 육군의 안전문화 대혁신 추진을 위해 먼저 매너리즘과 전문성 부족으로 발생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예방 시스템을 기본부터 점검하고 종합적으로 개선하겠으며 육군 구성원의 의식 등 군내 환경 변화와 국민적 기대에 부합하는 조직 및 병영문화로 개선하고 인력 부족에 따른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편성 및 환경에 대한 구조적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제대별 역할 정립을 위해 육본은 고위험군 사고를 집중 관리하며 예하부대는 중위험군 이하 사고를 관리할 수 있도록 인원과 조직 등 능력과 시스템을 구비시키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결언으로 사람 중심의 안전육군을 건설하기 위해 육군은 최선두에서 지휘관이 이끌고 전 구성원의 노력을 결집하여 보다 근본적인 변화를 통해 우리 구성원 모두가 안전한 가운데 오직 전투 준비와 교육훈련에만 전념할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어서 해군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다음으로 강동길 해군참모총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군참모총장 강동길 안녕하십니까? 해군참모총장 강동길 대장입니다.

먼저 국가안보와 군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성일종 국방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군은 최근 발생한 일련의 군 사고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과 전우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문제라면 최고도의 경각심을 가지고 절대 양보가 있어선 안 된다는 자세로 안정적 부대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실질적 이행을 지속 점검하고 지휘관 중심의 안전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생명 존중 문

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해군은 엄정한 군기강을 확립한 가운데 국민은 물론 전우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군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민의 필승해군을 구현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건네 주시는 고견을 경청하겠습니다.

아울러 양해해 주시면 해군 세부 현안은 인사참모부장 박태규 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일종 박태규 인사참모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군본부인사참모부장 박태규 해군본부 인사참모부장 박태규 준장입니다.

제출 드린 현안보고 자료를 이용하여 약 5분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최근 연이은 사건·사고 연결고리 차단을 위한 특별 부대정밀진단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진단 결과는 지난 9월 17일부터 23일까지 1주간 진단 여건을 보장하여 소대급 이상 전제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진단중점으로 해군본부 주관으로 실질적 점검항목을 선정하였으며 함정 등 창끝부대는 점검대조표를 활용하여 행동화 위주 진단을 시행하였습니다.

분야별 진단 결과로 먼저 사고 예방 분야입니다.

최근 사건·사고 증가로 관계관, 장성급 부대 주임원사, 대표 수병 등이 참여하는 군기강 확립 협의체를 실시하여 사건·사고 근절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각급 부대 지휘관 주관으로 사건·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간담회를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도박이 마약보다 나쁘다는 경각심을 갖고 자살 및 2차 피해와 직결되는 도박 예방 종합대책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자살 예방 분야입니다.

신상관리체계 점검 결과 일부 미흡사항이 식별되어 조치 중에 있으며 전 부대 자살 예방 강조기간 운영을 통한 생명존중문화를 활착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심리적 위기자 조기 식별을 위한 찾아가는 기동상담 활성화와 모든 심리적 위기자가 전문가에게 상담·치료 가능토록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교육훈련 및 작전 분야로 경계근무 실태 점검 결과 이상 없었으며 교육훈련 간 안전대책 강구 강조 지시 후 지휘관 주관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교육훈련 및 작전활동은 정상 시행 중입니다.

총기·탄약 및 안전관리 분야로 열쇠의 이원화 및 불출·반납 이중체계 확인 결과 일부 부대의 미흡사항 확인 후 시정조치 중이며 총기·탄약 취급자 안전교육은 정상 시행 중입니다. 또한 안전분야 점검 결과 긴급상황 대비, 장비 관리, 화재 대피 관련 일부 미흡사항이 식별되어 시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의료체계 진단 결과 응급환자 지원체계는 정상 작동 중이며 함정, 격오지에 설치된 원격진료 시스템 진단 및 정신건강관리 시스템 확인 결과, 이상 없었습니다. 다만 응급처치물자 보급 상태는 확인 결과, 전투용 응급처치키트 일부 부족으로 보충 예정입니다.

향후 조치로 추석연휴 간 군사대비태세 확립 및 사건·사고 예방활동을 강조하고 내일 해군지휘관 회의를 개최하여 군기강 확립 관련 지휘관심을 제고하겠습니다.

결언으로 해군은 지속적인 지휘관심으로 사고 연결고리를 차단하여 전우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이상 해군 보고를 마치고 공군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손석락 공군참모총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군참모총장 손석락 공군참모총장 손석락 대장입니다.

존경하는 성일종 국방위원장님과 국방위원회 위원님들의 국가와 국민을 위한 헌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위원님들의 믿음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국민이 신뢰하는 첨단정예공군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 한 해 임무 중 발생한 일련의 사고들에 대해 공군 최고 책임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를 드리며 안전하고 기강이 확립된 공군을 만들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공군은 지난 4월에서 6월 3개월간의 비행혁신TF 운영을 통해 기존 안전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되돌아보고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직 전반의 안전문화 정착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공군은 사고 관련 후속조치 추진 현황과 현재 진행 중인 개선방안들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허락해 주시면 인사참모부장 주성규 소장이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일종 주성규 인사참모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군본부인사참모부장 주성규 공군 인사참모부장 주성규 소장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비행사고 관련 후속조치, 지상사고 관련 후속조치 순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우선 최근 연이어 발생한 비행사고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군은 분골쇄신의 자세로 기본과 원칙을 준수하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첫째, KF-16 오폭사고 관련 재발방지 대책 수립과 비행혁신TF 운영을 통해 24개 과제와 74개 하부 실천과제를 수립하여서 임무 중 안전 확보를 위한 비행 절차를 개선하고 조종사가 주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각종 제도를 보완하였습니다.

둘째, 조종사, 관리자 등 비행사고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인사조치 및 징계를 시행하였고 추가적인 사고 유발요인 확인을 위한 강도 높은 현장 진단을 수행하였습니다.

셋째, 사고의 연결고리를 차단하기 위해 항공기의 안전조치와 함께 각종 절차와 규정을 완화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오폭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주민분들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의료지원 및 국가배상은 주민들 입장에서 최대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군은 비행 전 분야에 대한 전면적인 재정비, 실효적인 후속조치, 계획 실행·점검 확

인의 체질화를 통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공군 본연의 임무인 대한민국 영공을 방위하면서 국민에게 사랑받는 공군으로 거듭나겠습니다.

3쪽입니다.

이어서 지상사고 관련 후속조치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제주 크레모아 뇌관 폭발사고입니다.

지난 9월 10일 제주 관제대대에서 크레모아 사용법 직무교육 중 뇌관이 폭발하여 교관 및 예비군 7명이 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 발생 후 즉각 교육훈련을 중단하였고 방공관제사 주관 현장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연습용 뇌관과 실제 뇌관이 혼합 보관되어 있었고 당시 실제 뇌관이 교육훈련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어 관련 경위에 대해 공군수사단에서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이에 따라 폭발성 교보재 및 뇌관 폭발 관련 탄약 보유 부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교육훈련을 위해 폐탄약 교보재 사용을 금지하고 시범실습용 모형 교보재 제작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공군본부 주관으로 예비군 훈련시설 등 훈련 책임부대를 현장 점검하여 훈련관계관 대상으로 철저한 안전관리를 강조하였고 직무교육 교안을 표준화하고 안전수칙을 명문화하여 교육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사고 경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안전관리 개선을 통해 유사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최근 연속적인 총기·탄약 무단반출 및 인명사고 발생 관련 공군의 총기·탄약 안전관리 시스템 강화 방안입니다.

공군은 무기고·탄약고에 대한 중첩 관리체계를 예하 전 부대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기고·탄약고 출입 시에는 2인 이상 손등 정맥 인증을 통한 이원화 절차를 적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출입 이력 전산화 및 실시간 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출입통제시스템 적용이 불가한 간이보관함의 경우 2인의 간부가 열쇠를 분리 휴대하여 관리 중입니다. 또한 출입통제시스템 외에 비상벨, 특수형 자물쇠, CCTV, 봉인지를 통해 중첩 관리하고 있으며 전 무기고·탄약고 대상 사각지역 CCTV 확대 및 보강 설치를 통해 무인화 감시체계를 지속 보강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총기·탄약 안전수칙에 대한 반복 교육과 함께 관리 실태에 대한 주기적인 현장 점검을 통해 총기·탄약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공군 또한 국방부 지침에 의거 9월 특별 부대정밀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공본 주관 분야별 추가 점검을 통해 미흡 및 보완사항을 지속 식별하고 관행적 업무를 개선하여 안정적 부대 운영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중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일석 해병대사령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병대사령관 주일석 안녕하십니까?

해병대사령관 주일석 중장입니다.

먼저 지난 9월 13일 대청도에서 임무 수행 중에 총기로 사망한 전우 해병의 명복을 빌면서 유가족분들에게 진심으로 해병대사령관으로서 다시 한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병대도 최근 각 군에 있는 사건·사고, 해병대에 나오는 사고들을 보면서 굉장히 상황의 심각성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저희 해병대도 9월 30일까지 작전 대비 교육훈련, 부대 관리 전 분야에 있어서 정밀 부대진단을 실시하고 있고 또한 이러한 정밀 부대진단 결과를 후속조치를 철저히 해서 비전투손실을 예방해서 작전 대비 측면에서 더욱 발전되고 안전한 해병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나 건강하고 소중한 아들딸을 군에 보내신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군을 믿을 수 있고 또한 이 아들딸들이 건강하게 사회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사항은 승인해 주시면 인사근무처장 현우식 대령이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일종 현우식 인사근무참모처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병대사령부인사근무참모처장 현우식 해병대 인사근무처장 현우식 대령입니다.

최근 발생한 사건·사고의 연결고리를 끊고 안전한 가운데 해병대 본연의 임무 전념을 위한 사건·사고 예방 관련 해병대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병대 최근 발생한 주요 사고로 9월 13일 대청도 6여단 병장이 총기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사고자는 9월 13일 09시경 대청도에서 사망하였으며 이후 같은 날 야간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유가족 입회하 군·경 합동감식을 실시했고 9월 15일까지 장례를 시행하였습니다.

주요 조치로 수사단에 의한 사고 발생 원인 등을 조사 중에 있으며 사고 부대는 당시 현장에 있던 인원을 포함한 부대원들에 대해 정신건강 장애 예방활동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2주간 전 부대에 대한 정밀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주간 실시한 특별 부대정밀진단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병대는 각 부대별 자체진단 외에 부사령관을 진단반장으로 대규모 진단반을 편성하여 백령도 등 서북도서, 말도 등 서측도서를 포함한 전 부대에 대해 부대 활동 전반에 발생 가능한 사건·사고 예방활동에 정밀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진단 결과, 자살 예방 분야에서는 자살예방종합시스템은 정상 시행 중이나 일부 간부 대상 심리검사 미실시와 실적 위주의 형식적 면담이 확인되는 미흡 분야를 식별하였고 이에 따라 진단기간 내 전 장병 및 군무원은 신상관리제에 의한 개별 일대일 면담을 실시하고 심리검사를 일제 시행하여 실질적인 고충 위기자 식별 노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고충 장병의 비밀 보장을 위한 무기명 설문 및 애로사항 접수 시 후속조치 공지 등을 통해 신뢰를 바탕으로 한 실질적 소통체계가 구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응급환자 진료체계는 정상적으로 갖춰져 있었고 특히 서북도서 지역 원격진료시스템 확인 결과, 이상 없었으며 최근 사고 발생 부대에 사후관리 치료 프로그램도 정상적으로 시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교육훈련·작전 분야에서는 지휘관 주관 현장 중심의 지휘 및 예방활동은 강화 중이나 일부 노후 교보재를 미반납하는 등의 문제가 식별되어 10월 한 전수조사 및 전량 수거를 추진 예정이고 활성 및 비활성교보재 등 고위험 교보재 취급 관리와 결산시스템은 특이 사항 없었으나 취급관리 요원에 대한 집중 교육을 시행하였습니다.

군수 및 안전 분야에서는 전 부대 총기·탄약 일제점검 결과, 이상 없었으나 일부 장병들의 매너리즘에 기인한 안전의식 부족이 식별되어 직책별 안전책임에 대한 집중 교육과 감독체계 시행을 지시하였고 다시 한번 모든 활동의 중심은 사람이 최우선되어야 함을 재강조하였습니다.

향후 추진입니다.

특별 부대정밀진단 간 식별된 후속조치 과제는 최단시간 내 보완할 예정이고 진단 종료 이후에도 주기적인 진단을 통해 취약요인 식별 시 재진단 등을 통해 사건·사고 요인 제로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와 관련하여 작전 대비태세 긴장도를 유지하는 가운데 일부 예상되는 소외계층에 대한 사전 관심 등 안정적 부대관리에 대한 지휘관심을 경주하겠습니다.

해병대는 최근 발생한 총기 사망사건 관련 공정·투명한 사고조사를 시행하고 부대 운영 전반에 걸쳐 사건·사고 연결고리 처단을 위해 사령관을 포함한 전 장병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성일종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서 현안보고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순서에 따라서 백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희 위원 오늘 회의는 군의 사건·사고들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 또한 매우 마음이 무겁고 그리고 여기 계신 군 지휘관 모두들 무거운 책임감으로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군에서 사고가 너무 많이 납니다. 공군 전투기, 포천 민가 오폭 사고, 해군 초계기 추락, 육군 파주 모의탄 폭발, 해병대 대청도 총기사고 등등등 너무 많이 나 가지고 국민들이 불안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어떻게 보내겠습니까. 보내면서 내 자식을 군에 보낼 때 ‘제발 다치지 말고 그대로만 돌아와 다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 상처를 내고 있고 그리고 국민들의 신뢰도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김규하 육군참모총장에게 여쭙겠습니다.

파주 포병부대 모의탄 폭발사고로 벌써 10명의 군인들이 다쳤습니다. 저는 이것이 원인이 규명되어야 하지만 인제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도 갖게 됩니다. 이번에 해당 폭발 효과 모의탄, 2015년에 군에 납품된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장 수명하고

보관 수명을 보니까 3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장 수명하고 보증기간이 3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2025년이기 때문에 7년이나 지난 것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고 모의탄 로트하고 같은 번호의 모의탄 4만 5000발이 남아 있고 그리고 수명이 초과한 훈련용 모의탄이 육군에만 20만 발이 남아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총장님, 수명이 초과했음에도 육군이 훈련에서 계속 이러한 탄을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명이 초과한 탄을 계속 사용하실 예정이신지요? 아니면 탄을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여쭙겠습니다.

○육군참모총장직무대리 김규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처럼 저장 수명 내를 초과한 탄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 탄에 대한 것은 정기검사를 통해서 계속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 가능했을 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근원적인 문제점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봤을 때 말씀하신 대로 연말까지 이 부분을 계속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폐기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유관기관하고 점검도 하고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확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백선희 위원 그런데 그 훈련용 모의탄이 2010년부터 17년까지 여덟 차례에 걸쳐서 60만 발 정도를 획득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20만 발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교탄에 대한 소요 자체도 잘못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부분이 육군의 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은 2021년, 2022년에도 유사한 사고가 있었고 그런데 이 조사 과정에서 육군의 탄약지원사령부에서 ‘현 모의탄은 안전장치가 없다, 그래서 신규 개발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의견을 냈다라고 들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육군참모총장직무대리 김규하 예, 그렇습니다.

○백선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운영상의 문제가 아닌가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데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것이 지금 사고가 계속 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챙기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그 교보재 중에서 저장 수명이 명확히 규정된 것은 세 가지뿐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저장 수명이 어떻게 되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육군이 교탄에 대해서 주기적인 기능시험으로 성능을 평가·관리한다라고 하고 있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교탄에 대해서는 ASRP라고 하는 것을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장님, 사고가 계속되기 전에 육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교보재 탄약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시고 그리고 노후 탄약의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노후 탄약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기준 정립이 시급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어찌 보시는지요?

○육군참모총장직무대리 김규하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주안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선희 위원 이어서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월 23일 날 KF-16 항공기 활주로 이탈 사고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이 외부 물질로 인한 앞바퀴 타이어 파손이라고 들었는데요. 총장님, 현재까지 조사된 활주로 외부 물질, 무엇입니까?

○**공군참모총장 손석락** 외부 물질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른 기체에서 떨어진 조각 또는 외부에서 들어온 돌 등의……

○**백선희 위원**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는 외부 물질이 무엇입니까?

○**공군참모총장 손석락** 아직 그 부분은 명확히 조사되지 않았습니다. 지속적으로 조사중에 있습니다.

○**백선희 위원**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활주로에 외부 물질도 있을 수 있습니다라는 만약에 이것이 기체 문제라고 하면 문제는 더 큰 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원인 조사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만 비행 사고가 5건이 있었습니다. 총장님도 조종사 출신이시지요? 그런데 이렇게 유례없게 1년에 5번의 사고가 발생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공군참모총장 손석락** 일단 그러한 사고가 공군에서 일어난 점에 대해서는 공군참모총장으로서 깊은 유감과 또 사과를 드리는 바입니다.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백선희 위원** 사과하시고 원인에 대해서는 잘 파악하지 못하고 계시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3월에 공군 포천 민가 오폭 사고가 있었지요? 저는 포천 현장에 두 번 다녀왔습니다. 그 사고가 있는 이후에 오폭 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고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원인을 검증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때 조종사 교육이나 검증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원인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보다 많은 원인이 같이 존재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공군의 인적 실수, 절차 착오, 지휘체계 미확인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보다 종합적이고 보다 체계적인 시스템이 도입되지 않으면 이런 사고는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일을 잘못하면 징계를 해야 되는데 징계로 끝날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노후장비도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훈련 검증 체계도 보셔야 되고 조종사 기강 확립까지도 다 보셔야 합니다.

오늘 공군에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저는 매우 미흡하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보장해서 다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산재와의 전쟁, 우리 사업장에서 산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매우 강한 의지를 보이고 계십니다. 저는 국방부를 중심으로 해서 마찬가지로 이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와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그 의지를 보여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발표하신 대책에 대해서는 초안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국방부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그 계획을 점검하고 다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간의 사건으로, 이 사건이 순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고로 인한 피해, 후유증 그리고 그렇게 상처 입은 군인에 대한 군대 제대 이후의 재활까지 고려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동길 해군참모총장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군참모총장 강동길** 사고의 발생 원인은 다양하게 있으나 기본과 원칙에 입각한 부대 운영으로, 특히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제적 사고 예방

활동과 밝은 병영문화 조성을 통해서 사고 예방 활동을 지속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일종 백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청래 대표님 바쁘신데 오셨거든요. 먼저 질의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청래 위원 순서를 바꿔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아들 2명이 군대를 갔다 왔습니다. 군대를 보내고 제대를 할 때까지 항상 노심초사, 오늘은 또 무사히 잘 지나가야 될 텐데 하면서 기도하는 심정이었습니다.

요즘 군이 많이 좋아져서 중대장께서 부모들하고 카톡도 자주 하고 그래서 비교적 소식은 자주 접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유독 군에서 이렇게 일어나지 않아야 될 사고들이 일어나서 우리 아들들이 피해를 많이 보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무척 안타깝고 무겁습니다.

공군참모총장께 여쭙겠습니다.

25년 올해 들어서 공군 비행 사고만 봤을 때 3월 경기도 포천 민가 오폭 사고, 4월에 KA-1 외부장착물 비정상 투하 사고 또 6월에 레드플래그 알래스카 훈련 KF-16 이륙 중 이탈 사고 또 7월에는 C-130 항공기 일본 영공 JADIZ 미승인 진입 또 9월에는 KF-16 항공기 활주로 이탈 사고 등이 있었어요. 잘 알고 계시지요?

○공군참모총장 손석락 예, 그렇습니다.

○정청래 위원 그런데 문제는 천재지변에 의해서 불가항력적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일어난 사고라면 그래도 ‘아, 그랬구나’ 하고 생각을 할 텐데 이게 대부분 인재 아닙니까?

○공군참모총장 손석락 예, 그렇습니다.

○정청래 위원 인제는 관리 소홀, 지휘 감독 부실 그래서 일어난 사고들이 많아요. 그러면 발생한 인재들은 관리를 잘하고 지휘 감독을 잘하고 또 FM대로 규칙이 잘 지켜지고 그러면 방지할 수 있는 사고들이라는 것이지요.

참모총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공군참모총장 손석락 예, 저도 대표님 말씀에 동의하고 똑같이 하겠습니다.

○정청래 위원 경기도 포천 민가 오폭 사고는 이것 왜 일어난 것이지요?

짧게 짧게 답변하세요.

○공군참모총장 손석락 조종사의 표적 좌표 입력에 대한……

○정청래 위원 좌표 입력을 잘못된 것이지요.

○공군참모총장 손석락 예, 오류가 직접적인 요인입니다.

○정청래 위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4월에 일어났던 KA-1 외부장착물 비정상 투하 사고는 왜 일어난 것이지요?

○공군참모총장 손석락 조종사의 조작 실수에 의해서……

○정청래 위원 그렇지요. 이것도 실수지요. 인재라고 할 수가 있지요.

그다음에 6월의 이탈 사고 이것도 뭘 잘못……

○공군참모총장 손석락 올바른 인지를 못 해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정청래 위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른 사건도 참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이 일본 영공 미승인 진입한 것 있잖아요. 이것은 기본 중에 기본 아닙니까?

○공군참모총장 손석락 그렇습니다. 실무자와 또 관련자 조종사들의 소통 문제도 같이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정청래 위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9월에 있었던 KF-16 항공기 활주로 이탈 사고 등도 이것도 막을 수 있는 사고였지요?

○공군참모총장 손석락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청래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일어난 사고 유형들이 쭉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제가 질문한 이런 사고들이 이전에는 이런 류의 사고들이 없었습니까?

○공군참모총장 손석락 유사한 게 있었지만 이번처럼 한 번에 집중해서 생긴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다 잘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정청래 위원 그러면 사고 하나하나를 발생한 이유를 다 따져보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 제가 언급한 것만, 예를 든 것만 5개인데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겠다 하는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군참모총장 손석락 예, 알겠습니다.

○정청래 위원 그리고 육군참모총장께 여쭙겠습니다.

지난 2일 육군 3사관학교 대위가 총기로 생을 마감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지요?

○육군참모총장직무대리 김규하 예, 그렇습니다.

○정청래 위원 그런데 이것도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세계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총기보관함 열쇠 5개를 한곳에 보관했다면서요? 맞습니까?

○육군참모총장직무대리 김규하 예, 통제성 열쇠 보관함에 보관을 했습니다.

○정청래 위원 예를 들면 열쇠를 다른 곳에 보관하면 만약에 우발적으로 육해상 총기를 가지고 가려고 하다가도 열쇠 5개를 다른 곳에 다 보관하고 있었으면 이런 사고가 안 일어날 수도 있는데, 열쇠 5개를 한곳에 보관하라 이런 지침이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이것은 완전히 관리 소홀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육군참모총장직무대리 김규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확인하고 있고 지금 보완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정청래 위원 그러니까 사고라는 것이요, 무슨 큰 일을 잘못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런 사소한, 기본을 지키지 않아서 발생하는 사고들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열쇠를 분산해서 보관하는 것이 어려운 일도 아니잖아요. 이것이야말로 시쳇말로 군기가 빠진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모총장?

○육군참모총장직무대리 김규하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전반적인 시스템 보완을 해 나겠습니다.

○정청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열쇠는 분산해서 보관하라 이런 지침이 있어요, 없어요?

○육군참모총장직무대리 김규하 열쇠는 이원화 관리해 가지고 통제성 열쇠……

○정청래 위원 그렇습니다. 이원화라는 게 그런 것이잖아요. 분산해서 보관하라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일이 자꾸 발생하고, 저도 사고를 이렇게 보면서 ‘야, 이게 사고가 이렇게 많이

일어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게 윤석열 정부 당시에 군 사고가 참 많았는데요. 24년 신병교육대 수류탄이 터진 사건 또 얼차려 훈련병 방치해서 사망한 사건, 채 해병 사망 사건까지 이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다 인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인재라는 얘기는 미연에 방지하면 다 막을 수 있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나오신 참모총장님들, 유사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의 생명이 천하이고 우주라고 그랬습니다. 사고로 이렇게 눈을 감으면 천하도 눈을 감고 우주도 눈을 감는 거예요. 한 명 한 명,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자고 군대가 있는 것인데 정작 그 임무를 수행하는 군인들이 관리 소홀로, 지휘 감독 부실로 이렇게 아까운 생명을 잃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일종 정청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승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승찬 위원 육군총장님께 좀 여쭙볼게요.

용사들하고 간부들 자살률을 보면 어디가 높습니까?

○육군참모총장직무대리 김규하 지금은 간부들이 더 높아졌습니다.

○부승찬 위원 그렇지요?

○육군참모총장직무대리 김규하 예.

○부승찬 위원 높아진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육군참모총장직무대리 김규하 원인은 개인 및 부대적 요인이 있는데 저희가 현안보고에서도 말씀드렸던 문화적인 측면 또 구조적인 측면 또 환경적인 측면 아주 복합적인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부승찬 위원 그러면 21년부터 올해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간부들에 대한 자살이 많거든요. 극단적 선택이 너무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좀 예외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보면 21년도만 보더라도 장교가 여섯 분, 부사관이 스물네 명, 22년은 장교가 넷, 부사관이 열여덟, 23년에는 장교가 넷, 부사관이 열일곱 그다음에 2024년에는 장교가 셋, 부사관이 열아홉 명, 그렇지요?

○육군참모총장직무대리 김규하 예, 그렇습니다.

○부승찬 위원 그래서 물론 병력 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해군이 나 공군에 비해서 낮은 수준일 수도 있지만 간부들이 이렇게 극단적 선택을 많이 하는 이유, 어떻게 대처할지, 물론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마는 사회가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서 과거와는 다른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병영 내 복합적인 요인 그다음에 장병 신상관리시스템 작동 미흡, 소통문화 경직 이런 것들이 주된 원인이라고 보고 계신 것인가요?

○육군참모총장직무대리 김규하 예, 그렇습니다.

○부승찬 위원 그것 사실은 어려운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총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게 결국 사람 중심의 육군으로 바꾸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육군참모총장직무대리 김규하 그렇습니다.

○부승찬 위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한 대응책, 대책 마련도 중요하더라

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울러 제가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극단적 선택을 하신 분들에 대한 명예와 예우 이것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그냥 한 목숨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우리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자세 이것을 가지고, 위법한 행위도 없는데 순직 2형·3형을 또 논하면서 가족들까지 사지로 몰아넣는 이런 문화는 좀 탈피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국방부에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복을 입고 있었던 분들에 대한, 극단적 선택을 했지만 그런 분들에 대해서 국가가 여전히 책임을 져야 된다, 끝까지 책임을 진다 이런 대책도 같이 마련됐으면 좋겠어요, 예방 활동도 중요하지만. 이 극단적 선택을 막을 수 없다면 이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에 대한 예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좀 고민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군참모총장님이나 공군참모총장님 그리고 해병대사령관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군참모총장 손석락 예, 알겠습니다.

○육군참모총장직무대리 김규하 잘 알겠습니다.

○부승찬 위원 그래서 예방뿐만 아니라 사후에도 어떻게 우리 군복 입은 분들에 대해서 예우를 할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좀 살펴봐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군총장님께 좀 여쭙볼게요.

P-3기 사고 조사가 지금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해군참모총장 강동길 예, 민관군 합동조사위에서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부승찬 위원 지금 보면, 사고원인을 명확히 규명할 수는 있는 겁니까?

○해군참모총장 강동길 제가 개입을 안 하고 있어서 확실치는 않은데 어쨌든 공정하게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부승찬 위원 음성녹음저장장치가 확보가 되고 그러면 이 사고원인을 규명하는 데 조금 더 이로운 점이 있을텐데 그것도 없어요. 그렇지요?

○해군참모총장 강동길 예, 그렇습니다.

○부승찬 위원 블랙박스가 있거나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해군참모총장 강동길 예.

○부승찬 위원 지금 해군에는 P-3기나 포세이돈이나 그다음에 해상작전헬기 이런 부분들이 전부 블랙박스가 없지요?

○해군참모총장 강동길 최근에 획득한 항공기는 장착이 되어 있고.

○부승찬 위원 아, 최신……

○해군참모총장 강동길 예, 현재 24년부터 블랙박스가 없는 항공기를 대상으로 설치를 하고 있는데 50대 중에 36대는 했고 14대는 11월까지 장착될 예정입니다.

○부승찬 위원 그러면 완벽하게…… 헬기도 마찬가지입니까?

○해군참모총장 강동길 예, 헬기도 장착하고 있습니다.

○부승찬 위원 이게 더딘 이유가 뭡니까? 돈 타령?

○해군참모총장 강동길 돈은 아니고 작전임무 안 하는 기체를 상대로 하나씩 하나씩 하다 보니까 한 번에 안 되고 순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승찬 위원 그렇습니까.

공군총장님께 좀 여쭙게요.

○공군참모총장 손석락 공군총장입니다.

○부승찬 위원 항안단이 어찌 됐든 이 비행사고와 관련돼서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공군참모총장 손석락 예, 조사관과 조사실장까지 해서 공군의 비행사고와 노하우에 대해서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부승찬 위원 그러면 뭔가 원인 규명에 조금 명쾌한 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전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P-3기 사고와 관련돼서 원인 규명하기가 정말 어려워 보이거든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공군참모총장 손석락 제가 결과를 다 보고받아 보지는 못했지만 적극적으로 잘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승찬 위원 우리 조종사들 거기서 보면 완전히 불규칙한 기동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영상으로만 봤을 때 항공역학적으로 일어나기 힘든, 그렇잖아요? 이렇게 다이브되는 상황이라. 그때 우리 조종사분들 그리고 거기 순직한 우리 4명의 간부들은 어떤 마음일까, 끝까지 조종간을 놓지 않고 있었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분들의 희생에 대해서 아는 게 너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분들의 희생정신이 사고 조사에서 명확히 밝혀지고 그리고 영웅으로 예우받을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관심을 더 가져 달라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득 위원 임종득 위원입니다.

오늘 보니까 육군·해군·공군 참모총장님들 나오셨는데 아마 취임하고 처음 국회에 출석한 것 같아요. 늦었지만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아마 취임하고 지금까지 정신없이 시간을 보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일종 위원장, 부승찬 간사와 사회교대)

제가 군 생활을 그래도 35년 이상 했는데 제가 봐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육해공군의 일련의 사건·사고들은 이해적이다, 군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해하기 어려운 사고들이 너무 많다, 국민 눈높이에서 과연 이게 이해가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사태의 엄중함을 충분히 인식하시고 사고의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육군참모총장님.

○육군참모총장직무대리 김규하 예.

○임종득 위원 육군에서 포병 출신으로 최초로 참모총장이 됐지요?

○육군참모총장직무대리 김규하 최초는 아닙니다.

○임종득 위원 최초가 아닌가요?

○육군참모총장직무대리 김규하 예, 전에도 두 분 계셨습니다.

○임종득 위원 있었어요?

○육군참모총장직무대리 김규하 예, 그렇습니다.

○**임종득 위원** 총장에 대한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고가 나고 나서 국방부장관께서 지시도 있었고 전군지휘관회의도 했었고 부대별 정밀진단도 이렇게 쪽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보고도 했습니다마는 총장이 보기에 진짜 사고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육군참모총장직무대리 김규하** 저희가 사고의 원인을 접근하는 데 있어서 저는 인적 요인에 너무 많이 집중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인적 요인 외에 그러한 인적의 어떤 휴먼 에러라든지 그런 것들이 나게 된 구조적·문화적인 것, 환경적 이런 근원적인 데에 저희가 조금 많이 못 했던……

○**임종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고들이 빈발하기 이전의 인적·구조적·환경적 요인이 달랐을까요?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1년 전, 5년 전의 구조가 좀 더 악화된 면은 있겠지만 결코 달라지지 않았어요. 육해공군이 공히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유독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육해공군에 말도 안 되는 사고들이 빈발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원인 분석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필요하다고,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그 부분을 봐 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야지 대책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육군참모총장직무대리 김규하**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원인에 대해서 정확히 진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종득 위원** 지금 사고가 나고 부대정밀진단을 진행하고 있는데도 육군에서는 3건의 사고가 또 났어요. 그렇지요?

○**육군참모총장직무대리 김규하** 그렇습니다.

○**임종득 위원** 그 사건을 들여다보면 말도 안 돼요. 9탄약창 병장 사건 아시지요?

○**육군참모총장직무대리 김규하** 예, 그렇습니다.

○**임종득 위원** 병력이 없어졌는데 떨어져서 죽었어. 죽었는데 그때까지도 몰라요. 경찰이 신고하니까 그때서야 이제 ‘아이고, 없다’. 핸드폰을 가지지 못하는 시간대에 핸드폰도 가지고 갔어요. 이걸 뭘로 설명할 수 있지요? 총체적 난국입니다, 총체적 난국. 이 부분이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일어나고 있느냐를 바로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이런 와중에 육군에서 최근에 보니까 군 내 사고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검토하는 용역을 냈어요. 이것 총장이 냈습니까?

○**육군참모총장직무대리 김규하** 그 이전에 용역 의뢰를 했고 제가 취임하고 나서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임종득 위원** 그러면 용역을 자발적으로 육군에서 한 거예요, 상부의 지시가 있는 거예요?

○**육군참모총장직무대리 김규하** 지시는 없었습니다. 저희 육군에 인원들이 많고 중대재해처벌과 관련해서 예하부대에서 많은 문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어서……

○**임종득 위원** 제가 우려하는 이유는 작금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사고들과 관련해서 연

계해서 처벌을 강하게 하면 사고가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지금 앞뒤가 바뀐 처방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중대재해법 들어가면 하급간부들 엄청난 부담을 가지지 않겠어요? 이탈하고 있잖아요. 이탈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자기의 의지와 무관하게 지금 군에 와 있는 병사들에서 일어난 사건까지를 적용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합니까, 총장은?

○**육군참모총장직무대리 김규하** 적용의 관점에서 저희가 의뢰한 것은 아니고 그런 문제를 이미 많은 문의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명확하게 정립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임종득 위원**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육군참모총장직무대리 김규하** 예, 알겠습니다.

○**임종득 위원** 다음은 9·19 군사합의 복원과 관련해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정동영 장관이 복원과 관련해서 발언한 내용 알고 계시지요?

○**육군참모총장직무대리 김규하** 예, 그렇습니다.

○**임종득 위원** 그다음에 사격훈련과 실기동훈련과 관련해서 국방부와 협의 중에 있다는 발언도 알고 계시지요?

○**육군참모총장직무대리 김규하** 예, 그렇습니다.

○**임종득 위원** 이것과 관련된 지시를 받은 적 있습니까?

○**육군참모총장직무대리 김규하** 협의하거나 지시받은 사실 없습니다.

○**임종득 위원** 없습니까?

슬라이드 하나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9·19 군사합의와 관련된 내용.

(영상자료를 보며)

9·19 군사합의 내용에 보면 군사분계선 5km 안에서는 포병 사격훈련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이 금지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육군참모총장직무대리 김규하** 예, 그렇습니다.

○**임종득 위원** 이걸 지난 적용되는 과정 속에서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었지 않습니까? 지금 군에 계시니까 이와 관련해서 어떤 문제를 겪었는지 한번 이야기할 수 있나요, 포병 사격과 관련되는 것?

○**육군참모총장직무대리 김규하** 아무래도 사격장이 제한되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임종득 위원** 지금 서해 5도 같은 경우, 해병대사령관도 와 있습니다만 엄청나게 많은 예산의 낭비 요소와 대비태세에 있어서의 문제를 야기시켰던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을 복원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총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육군참모총장직무대리 김규하** 아마 국방부에서도, 9·19 군사합의 적용 간에 도출됐던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아마 그와 관련된 것을 검토하고 추진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종득 위원** 그러니까 군사분계선으로부터 5km 이내의 포병 사격과 연대급 이상 부대의 훈련을 금지하는 조치는 우리가 전술적으로 보나 전략적으로 봤을 때 방자의 이점을 스스로 포기하는 거예요.

방자는 뭐예요? 내가 싸울 지역에서 먼저 정찰하고 전투 진지를 만들고 준비를 하고 훈련을 하고 지형을 익히고 거기에서 싸울 수 있는 준비를 하는 이점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훈련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이적행위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육군참모총장직무대리 김규하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아마 국방부에서 잘 검토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종득 위원 지금 상급부대에서 분명히 각 군에도 의견을 물을 겁니다. 이와 관련된 부분들을 과거에 9·19 합의 이후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제대로 이야기를 해서 잘못된 판단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부승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한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호 위원 희한하네. 왜 갑자기 ‘존경하는’을 붙여 가지고 당황하게 만들고 있어.

○위원장대리 부승찬 여기 써 있어요.

○한기호 위원 우선 해병대사령관님.

○해병대사령관 주일석 예.

○한기호 위원 우리가 ‘덕’ 자를 붙인 게 마이티덕, 레임덕, 데드덕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세 가지의 차이를 아십니까?

○해병대사령관 주일석 첫 번째 것을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한기호 위원 마이티덕, 잘 모르시지요?

○해병대사령관 주일석 예, 마이티덕은 제가…… 레임덕하고 데드덕은 알고 있습니다.

○한기호 위원 임기를 아주 성공적으로 잘 마치고 인수인계해서 부대에 아무 영향 없이 떠난 게 마이티덕이에요.

레임덕은 실제로 권력의 누수 현상으로 인해서 명령이 이행되지 않는 상태, 우리 군대로 말을 하면 실질적인 영향력이 발휘가 안 되는 게 레임덕이에요.

그러면 데드덕은 뭐냐? 권력의 공백으로 인해서 영향력 자체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지금 군은, 육해공군 총장님 계시지만 데드덕입니다. 그러면 왜 데드덕이라고 하나? 지휘관이 없으니까.

군단장을 볼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군단장이 전방에 몇 명입니까, 총장님?

○육군참모총장직무대리 김규하 5명입니다.

○한기호 위원 5명이지요?

○육군참모총장직무대리 김규하 예.

○한기호 위원 그중에 세 분이 자리가 비었지요?

○육군참모총장직무대리 김규하 예, 그렇습니다.

○한기호 위원 60%가 없어요, 지금.

그다음 수방사령관도 없지요. 특전사령관도 없지요. 방첩사령관도 없지요. 드론사령관은 맨날 불러 다니지요. 정보사령관도 지금 없지요. 이러니 데드덕이 되는 겁니다. 지휘관이 없는데 누가 무슨 명령을 내리고 말고 할 게 없어요. 그러면 얼마나 없느냐? 군단

장급 지휘관은 75%가 없습니다.

총장님이 근무하시던 곳이 어디예요?

○**육군참모총장직무대리 김규하** 미사일전략사령관으로 이전에 근무했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 자리도 없지요?

○**육군참모총장직무대리 김규하** 예, 그렇습니다. 직무대리가 하고 있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지휘관이 75%가 없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사고가 안 나기를 바라요?

두 번째, 사단장들은 지금 어떠냐? 34개월이 넘은 야전 사단장이 지금 4명입니다. 그 뒤에 29개월 이렇게 되신 분도 여러 분 있지만, 34개월이면 지금 3년째 하고 있어요.

이분들이 언제 교체되느냐? 언제 보직되느냐? 보직된 날짜, 국정감사 끝나고나 됩니다. 그러면 얼마 하나? 36개월 넘어가 버려요. 이러고서 사고가 안 나기를 바란다, 이 자체가 착각 아닙니까?

그러면 하부조직은 어떠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중대에, 우리 육군 같은 경우 중대에 소대장이 4명이 있어야 됩니다. 4명 중에 4명이 다 찬 곳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얼마? 60~70% 정도는 3명밖에 없어요. 대신해서 부사관이 임무를 수행하고, 대리 체제예요. 육군 전체가 대리 체제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장관은 이런 상태인데도 말이야, 전혀 인사에 관심도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 사고가 나지. 그래서 장관 책임인 거예요, 이게. 육군총장이 할 수 있고 해군·공군총장이 할 수 있는 선을 완전히 넘어 버린 거예요, 지금. 그래도 아무 관심도 없어. 말이 됩니까, 지금?

생각해 보세요. 야전의 분단장 5명 중에 3명이 없다. 언제까지 갈지도 모릅니다. 이러고 사고 안 나길 바란다, 착각하는 거예요.

이제 소령·중령들도 사실 문제가 됩니다, 내년도에. 왜 문제가 되느냐? 내년도에 GOP 시간외수당이 150시간입니다. GP는 200시간입니다. 150시간, 200시간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 1시간당으로 계산해서 이걸 통계를 내 보면 대위 같은 경우 중대장이 약 200만 원을 더 받습니다, 봉급 외에. 영관장교는 1원 한 장 없습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냐? 대위와 소령 간에 보수의 역전 현상이 생깁니다. 대대장하고도 역전 현상이 생길 수 있어요, 막 대대장 보임된 사람하고.

그러면 지금 병사들하고 초급간부하고 봉급의 역전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영관장교가 대위보다도 봉급을 적게 받는다 그러면 가족이 가만있겠습니까, 소령이 군대생활 하면서 만족감을 가지고 군대생활 하겠습니까? 의욕을 가지고 하겠습니까?

공무원과 똑같이 볼 수 없는 거예요. 대대장까지는 GOP 선상에서 먹고 자고 그곳에서 똑같이, 병사들과 똑같이 하잖아요. 문제가 생겨요. 이러니까 사고가 나는 거예요. 이런 군의 잘못된 제도와 그리고 잘못된 인사, 지금 누구 개인에게 따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공군에 대해서는 지난번 총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군이 지휘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잘 알잖아요. 지휘관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군에서는 전쟁이 나면 제일 먼저 지휘관부터 타격을 가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중요한 지휘관을 빈자리로 놔두고 있는데, 그냥 놔두고 있어요? 대리근무자가 있으면 된다고요?

대리근무자가 있어서 됩니까? 군만큼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지휘관이 없는 지휘 공백이라는 건 부대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저절로.

그다음에 임기가 1년 이상이 넘어가면 이게 레임덕의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부하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우리 사단장 어디로 가신대?’ ‘다음에 오시는 분은 누구래?’ 관심이 이렇게 가는 겁니다. 지시사항을 이행하겠다는 생각이 우선되지 않아요. 심각한 걸 알아야 됩니다, 정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부승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강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식 위원 각 군 총장님하고 사령관님, 혹시 오늘 현안보고에 있어서 타 군이 작성한 현안보고 한번 공유하신 적 계세요?

○육군참모총장직무대리 김규하 육군은 다른 군은 공유하지 못했습니다. 공유하겠습니다.

○강대식 위원 다른 총장님들도 마찬가지지요?

○해군참모총장 강동길 예.

○강대식 위원 각 군의 현안보고하고 국방부가 자료 제출한 걸 내가 죽 한번 살펴봤는데 천편일률적입니다. 과거에 보고한 자료라든지 오늘 우리한테 보고한 자료라든지 전부 다 천편일률적이에요.

그러나 작은 희망은 하나 봤습니다. 그걸 내가 여기서 누구를 칭찬하고 누구를 격하시키고 이런 뜻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육군이 제출한 현안보고에서는 그나마 작은 희망을 봤다. 그래서 오늘 이후로라도 우리 각 군 참모총장님들과 사령관께서는 육군이 작성한 현안보고를 한번 공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육군이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매우 솔직히 고백을 해 봤어요. 그리고 문제 인식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근본적인 대책을 찾고자 매우 숙고를 했더라.

이런 말씀 드리는 동시에 또 아쉬운 점도 있었어요. 사망사고 등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통 보면 매년 군에서 장병들의 고충을 식별한다든지 사고 예방을 한다든지 안정적 복무 적응 지원을 위해서 병영생활상담관이라든지 민간 심리상담 지원이라든지 그린캠프라든지 심리검사라든지 자살예방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예산들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약 한 70억가량 예산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같은 기간에 군인의 사망사고가 일어난 것이 45명에서 75명으로 대폭 증가를 했습니다, 예산은 계속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장병들의 복무 적응을 위해서 예산은 지속적으로 사용을 하고 늘어나고 있는데 효과는 굉장히 미미하다. 실효성을 좀 재검토할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우리 각 군 총장님하고 사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육군참모총장직무대리 김규하 위원님,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대식 위원 간단히.

○육군참모총장직무대리 김규하 효율을 높이라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효율을 높

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긍정적인 것은 24년까지는 늘었는데 25년은 약 38% 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꾸준히 투자하고 프로그램을 확대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대식 위원 다른 총장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조금은 다르겠지요, 각 군마다 특성상.

○해군참모총장 강동길 해군총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고가 줄기도 하고 늘기도 하지만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서 최대한 줄이는 데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대식 위원 공군은요?

○공군참모총장 손석락 공군총장입니다.

두 분 총장 말씀에 추가하여, 예산이 많이 드는데 현재 예산이 좀 더 많이 증가돼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서 그 예산을 하려면, 우리가 각 기관 체계를 갖추면 그러한 부분들은 충분히 더 있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강대식 위원 특히 공군은 그럴 거예요, 지금. 심리상담관들 한 사람당 케어하는 게 1200명가량 되니까 이것은 터무니없는 수치 아니겠습니까?

○공군참모총장 손석락 그렇습니다.

○강대식 위원 사령관계서도 한 말씀 하시지요.

○해병대사령관 주일석 정확한 원인을 말씀하신 대로 과연 쓰여야 될 예산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도 한번 지휘관들이, 각 군 총장님, 해병대사령관 명확히 보고 대책을 잘 강구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승찬 간사, 성일중 위원장과 사회교대)

○강대식 위원 그리고 또 사망사고 통계를 한번 보면 상사와 중사에서 그 인원이 가장 많다는 것입니다. 육군참모총장님, 상사와 중사에서 왜 이런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한다고 간단하게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육군참모총장직무대리 김규하 가장 심각한 것은 부사관들이 주로 근무하는 데가 대대급 이하입니다. 대대급 이하의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 또 환경적인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대식 위원 제가 서두에 육군의 업무보고 중에서 조금 아쉽다는 점이 여기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각 군에 사망사고 원인을 분석 좀 해 달라고 내가 요청을 했는데 그러한 자료를 아직까지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육군에서 총기 자살과 무단 이탈 및 자살의 문제점으로 인력 감소로 과업 과중인 구조적 측면을 제시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총장님 오늘 보고한 업무보고 ‘참고1’에 명시된 최근 주요 사고에서 과업 과중에 대한 설명이 없는데 어떠한 근거로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건지……

○육군참모총장직무대리 김규하 그것은 단순한 현황이었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강대식 위원 과업 과중이 사망사고와 연관되어 있다는 이것은 저는 매우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장기복무 희망전역자가 영관 및 위관급에 비해

서 부사관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 총장께서도 알고 계시지요?

○육군참모총장직무대리 김규하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강대식 위원 1만 명을 넘었습니다. 그중에 부사관들이 약 한 70%를 차지하는데 7000명이 넘습니다. 5년 동안에 부사관 간부 희망전역자가 7000명이 넘고 사망사고도 부사관 계급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거 어떤 연관관계가 있다고 보십니까?

○육군참모총장직무대리 김규하 그것도 마찬가지로 부사관들이 근무하는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점점 더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대식 위원 돌아가 가지고 좀 전에 제가 이야기한 과업 과중하고 이것하고 연관이 됩니까?

○육군참모총장직무대리 김규하 직접적인 것은 저희가 더 세부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간접적으로 일부 영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대식 위원 일부 영향이요?

○육군참모총장직무대리 김규하 예.

○강대식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강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위원 육군총장직무대리님, 직무대리 되고 좀 있으면 육군총장 취임할 텐데 축하드립니다.

○육군참모총장직무대리 김규하 감사합니다.

○김병주 위원 아주 훌륭한 분이 일단 총장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앞으로 더 잘하라는 의미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할게요.

최근 1년 동안 우리 역사상 가장 큰 사건이 12·3 내란이었지요?

○육군참모총장직무대리 김규하 예, 그렇습니다.

○김병주 위원 12·3 내란의 주축을 이루었던 계엄군이 육군이 주로 있지 않습니까?

○육군참모총장직무대리 김규하 예, 그렇습니다.

○김병주 위원 12·3 내란 당시에 총장님은 직책이 뭐였지요?

○육군참모총장직무대리 김규하 미사일전략사령관이었습니다.

○김병주 위원 미사일전략사령관은 내란과는 관련이 없지요. 경계태세 2급 때문에 아마 비상을 걸었을 것 같은데 그때 뭘 조치했습니까?

○육군참모총장직무대리 김규하 그때 경계태세가 발령됐을 때 부대에서 최소한의 조치를 했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경계태세에 적용할 만한 적절한 조치부호들을 봤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니다.

○김병주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군총장으로 임명을 받은 경우는 실제 비상계엄과 연관성이 적기 때문에 그런 사람 중에 우수한 사람을 골랐다고 보고요.

육군이 사실 내란에 가장 관여가 돼서 군의 명예도 실추되고 지금 이렇게 사고가 많이 나는 이유 중의 하나도 저는 내란의 여파가 아직도 가고 있다라고 봐요, 군 기강이 해이되고.

총장님은 오늘 여기 첫 국방위에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국민께 육군을 대표해서

12·3 내란이 잘못됐다, 진심으로 사과한다 하고 사과를 드리고 시작을 해야 된다고 봐요. 한번 사과하시겠습니까?

○**육군참모총장직무대리 김규하** 제가 육군총장으로 취임할 때에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12·3 비상계엄으로 국민적 우려와 걱정이 매우 크셨고 그러한 우려와 걱정을 끼친 점에 대해서 깊게 사과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도 그 입장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김병주 위원** 지금도 다시 한번 사과드리세요.

○**육군참모총장직무대리 김규하** 12·3 비상계엄으로 국민 여러분께 큰 걱정과 근심을 안겨 드린 점 육군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희가 조속히 안정되고 육군이 국민 여러분께 신뢰받을 수 있는 그런 육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지금 내란에 대한 조사와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본 위원은 그 조사와 수사는 병산의 일각이라고 봐요. 이번에는 비상계엄이 전국 비상계엄이었고 지역계엄사령부, 지구계엄사령부 합해서 20여 개 이상이 설치되다가 중지가 됐잖아요, 실제.

○**육군참모총장직무대리 김규하** 예.

○**김병주 위원** 그렇기 때문에 육군에 관계된 전군이 거의 다 관여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수사는 병력이 국회와 선관위에 출동한 특전사나 수방사 위주로 되잖아요, 방첩사하고 정보사. 물론 국방부에서 조사를 하고는 있지만 저는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봐요. 육군 자체 내에서도 조사를 해야 된다고 봐요.

육군 내에서 조사한 적 있습니까?

○**육군참모총장직무대리 김규하** 현재까지는 특검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육군 자체적으로 조사한 건 없고 국방부에서 감사관실 중심으로 해서 일부 감사가 진행은 됐습니다.

○**김병주 위원** 12·3 내란은 이번에 척결하지 않으면 나중에 또 역사가 반복이 되는 겁니다, 실제. 그렇기 때문에 자체 조사단을 편성해서 조사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징비록을 써야 된다.

징비록 아시지요? 징비록이 뭘니까?

○**육군참모총장직무대리 김규하** 징비록은 류성룡께서 임진란 때 그 기록을 남긴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류성룡 같은 경우 임진왜란 때 영의정을 하면서 임진란의 잘못은 너무나 큰 잘못이다, 우리가 대비를 못 해서. 그래서 징비록 자체는 반성하고 부끄럽다, 후세에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라고 역사를 남긴 거거든요. 실제 그 이후에 200년 동안 왜군은 침범을 하지 않았습시다.

저는 이런 징비록을 육군 자체로 조사를 해서 남겨야 된다고 봐요. 지금 계속 ‘특검이 하고 있으니까 저희는 손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란 척결을 하겠다는 의지가 약한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요?

지금 육군군사연구소 있지요?

○**육군참모총장직무대리 김규하** 예.

○**김병주 위원** 군사연구소는 전쟁사라든가 이런 것을 기록하는 부서 아닙니까?

○**육군참모총장직무대리 김규하** 예, 그렇습니다.

○**김병주 위원** 지금 군사연구소에서 뭐 하고 있어요? 무슨 업무로 지금 연구하고 있습

니까?

○**육군참모총장직무대리 김규하** 그것까지는 제가 좀 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군사연구소가 핵심적으로 해야 될 것은 12·3 내란을 조사해서 징비록을 남기는 겁니다. 교훈으로 남기는 거예요. 육군이 자체적으로 자정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또 역사가 반복됩니다. 김규하 총장이 육군총장 된 이유는 내란과 관련이 없는 사람이 가서 뿔뿔하게 하라는 겁니다. 지금 육군은 많은 인원들이 관여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꼭 했으면 좋을 것 같고.

지금 12·3 내란과 관련해서 육군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헌법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강화해야 된다고 보는데.

○**육군참모총장직무대리 김규하**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국방부에서도 그런 헌법적 가치와 관련된 내용들을 지침도 받았고 저희가 그것 연계해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제가 좀 더 살펴서 우려하시지 않도록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국방부의 지침을 받아서 하는 것도 있지만 이번에 내란의 핵심 주체가 육군입니다. 저도 육군 출신이지만 12·12 쿠데타 이후에 40년 동안 그 명예를 지고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 절치부심했는데 윤석열 내란수괴와 김용현 이 일당들이 또 군을 이용해서 군의 명예가 실추됐습니다. 육군의 징비록을 써야 되는 겁니다. 국방부의 지시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김규하 총장이 지시해서 반성하고 반성하고 기록에 남겨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육군참모총장직무대리 김규하** 위원님의 우려 잘 알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잘 아는데 뭘 하겠다는 아웃풋이 없네요?

○**육군참모총장직무대리 김규하**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잘 살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김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명선 위원** 총장님들 취임 축하드리고요.

앞서 우리 김병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2·3 내란과 관련해서 군의 사기가 아주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을 겁니다. 우리 총장님이 잘 주의해서 장병들이 또 군 지휘관들이 사명감을 갖고 국가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9월 2일 날 육군3사 대위 총기 자살 사건과 관련해서 대구 수성못에서 사건이 발견됐지요. 이 내용과 관련해서 몇 가지 당부하고 싶습니다.

앞서 정청래 위원께서 주셨습니다마는 육군총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3사관학교 무기고에서 총기를 빼내기 위해서는 열쇠가 총 몇 개가 필요합니까?

○**육군참모총장직무대리 김규하** 무기고에서 빼내는 것은 상하 열쇠이기 때문에 2개가 필요합니다.

○**황명선 위원** 무기고에서 상단, 하단 그다음에 마스터키, 또 총기 보관함 상단, 하단. 그래서 총기를 이렇게 할 수 있지요.

○**육군참모총장직무대리 김규하** 예, 총기 보관함까지 여러 개 있습니다.

○**황명선 위원** 그러면 총 다섯 번이 돼요. 그렇지요? 5개가 지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열쇠를 다섯 번에 걸쳐서, 이렇게 5개의 열쇠가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통합열쇠 보관함에 보관되도록 지금 육군의 규정에 돼 있지요. 그렇지요?

○육군참모총장직무대리 김규하 예, 그렇습니다.

○황명선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5개를 무기고의 상단 하단, 마스터 키 그리고 총기 보관함의 상단 하단, 이렇게 5개를 따로따로 분리해 놓은 이유가 뭘까요? 이런 사고 때문에,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육군참모총장직무대리 김규하 단계를 좀 더 중첩되게 해서 방지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황명선 위원 그렇지요?

○육군참모총장직무대리 김규하 예.

○황명선 위원 그런데 이번에 왜 그런 사고가 났을까요?

○육군참모총장직무대리 김규하 결국은 키를 이원화하게 돼 있는 규정 준수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규정을 준수했으면 이원화되기 때문에 서로 견제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없는데 그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니다.

○황명선 위원 중요한 것은 5개의 키가 통합열쇠보관함에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육군참모총장직무대리 김규하 예.

○황명선 위원 결국은 원래 목적대로 따로따로, 이게 통합열쇠보관함에 함께 보관되는 게 아니라 따로따로 보관이 돼야 되겠지요. 그랬으면 이런 사고를 예방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규정이, 지금 육군본부의 규정에 통합열쇠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이것 규정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개정을 해서 따로따로 하면 통합 방위 열쇠함에 그냥 포괄적으로 5개가, 키만 받으면 5개를 그냥 취득해서 다 열 수가 있잖아요.

지금 사건의 가장 큰 양상이 이런 문제점들이 노출돼서, 보관에 대한 육군본부의 개정, 보관을 하더라도 따로따로 이렇게 개정이 돼야 실질적으로 5개의 열쇠를 만든 그 목적과 취지에 따라서 이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육군참모총장직무대리 김규하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잘 확인해 보고 보완책을 강구하겠습니다.

○황명선 위원 그리고 각 군의 총장님들께서도, 각 군의 이런 실태들이 아마 다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개정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사고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다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군참모총장 손석락 예, 알겠습니다.

○황명선 위원 그리고 이제 3군사관학교와 관련돼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일과 종료 후에 한 3시간 정도, 5시 반에서 9시 때까지는 생도 당직사관·당직부관들이 소지하고 있다가 9시에 현역군인 당직사령·당직부관들이 오면 다시 인계를 해요, 키를. 그러니까 세 시간 동안에는 생도들이 갖고 있어요. 그렇지요?

○육군참모총장직무대리 김규하 예, 그렇습니다.

○황명선 위원 이 시간대에 당직사관이 없다라는 게 이것도 허점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까지 보완을 하시기 바랍니다.

○육군참모총장직무대리 김규하 현재는 생도들이 소지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했고 교육 기관을 저희가 전부 확인해 보니까 3사관학교만 그런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어

서 현재는 보완을 했습니다.

○**황명선 위원** 이걸 제대로 보완하지 않으면 로그인은 다섯 번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비밀번호를 동일하게 하고 그냥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반드시 각 군에서 통합열쇠보관함에 대한 개정안을, 따로따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해서 다시는 이런 사고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군 총장님들, 사령관님,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요구합니다.

○**해군참모총장 강동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명선 위원** 그다음에 보면 매년 자살과 관련된 통계들이,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시기 빼놓고는 보통 100명에서 70명~80명대에 항상 군에서 사망사고가 발생이 돼요. 그 가운데서도 자살률이 가장 높아요, 한 80% 내외. 그 가운데서도 또 육군이 가장 높습니다. 이런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육군참모총장직무대리 김규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적, 부대적 요인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을 근본적으로 대책을 강구하기보다는 그때그때 일회성, 단기적으로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저희들이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맞춤형으로 하면서 24년까지는 굉장히 많이 늘었지만 25년은 다행스럽게 좀 많이……

○**황명선 위원** 예, 올해는 조금 많이 줄었지요.

○**육군참모총장직무대리 김규하** 예, 그렇습니다.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황명선 위원** 다만 지금 이 군 사망사고와 관련돼서는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잖아요. 첫 번째는 군기사고 자살안전사고, 두 번째는 질병 사망. 이 두 가지를 하고 있잖아요.

특히 이 자살 통계 처리할 때 부조리나 성폭력, 가혹행위에 대한 세분화가 없어요. 그래서 왜 자살을 했는지 세분화를 시켜야 그 원인과 여기에 따른 대책과 대응 방안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예방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군 사망사고 분류체계를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각 총장님하고 사령관님한테 이야기를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육군참모총장직무대리 김규하** 저희 내부적으로 유형별로 좀 더 세분화하고 있는데 통계적으로 제시할 때는 그런 부분까지 못 했는데 하여튼 원인과 대책 측면에서는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그런 부분까지 염두를 해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황명선 위원** 지금 이게 매년마다, 코로나 이후에 올해 빼놓고는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지금까지 군에서는 계속 육해공군, 해병대까지 계속해서 이런 자살과 관련된 사고사로 인한 대응과 예방과 노력을 계속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코로나 이후에 모든 데이터들이 일정 정도로 거의 비슷해요. 그러면 지금까지 예방했던, 대응했던 대응책과는 무언가 조금 더 구체적이고 과학적이고, 그리고 민간인에 대한 심리치료, 민간인들에 대한 우리 군 병사나 장병들에 대해서 무언가 이 시스템 차원을 확실하게 개편해야

자살률에 대해서 확실하게 극복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장님과 사령관님께서 대응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저한테 서면으로 의원실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 육군총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당 위원님들이 12·3 내란이라는 말을 공공연하게 사용하고 있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내란이란 모든 국가에서 헌정질서에 대한 최고 수준의 위협으로 간주되고요. 그 요건이 매우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경우에 형법 87조에 ‘내란의 목적은 국토 참절 또는 국헌문란’ 이렇게 목적이 명시되어 있고요.

그 이야기는 뭐냐,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이라는 좁은 범위 내에서 내란의 내용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이것이 실제 실행 단계에 이르렀는지 여부가 결정적인 판단 기준입니다. 독일처럼 준비 단계나 추상적 위협이 있을 경우에 처벌하는 경우도 존재하지만 대한민국의 내란죄는 의도, 조직성, 무력 사용, 현실성 등 복합적인 판단 요소가 요구되는 극도로 예외적인 범죄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내란죄 적용은 그래서 언제나 신중하고 절제되고, 그렇지 않으면 정치적인 도구로 악용될 위험이 매우 많은 죄가 내란죄입니다.

제가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을 옹호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계엄이 내란인지 여부는 현재 법적 책임 여부를 묻는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이렇게 아직도 심리 중인 사건의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공공연하게 그것을 12·3 내란이라고 하고 총장님이 비상계엄이 내란이라고 단정하는 여당 위원 질의에 대해서 동의하는 태도를 보이면 총장님, 우리 군이 내란군입니까?

○육군참모총장직무대리 김규하 저희 육군이 내란군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러니까요. 12·3 내란이라고 말씀하시면, 아직 그것은 내란인지 여부가 판단되지 않았습시다. 아무리 살인사건을 저지른 범죄자도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고요. 그래서 5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대통령도 취임해서 대통령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왜 계엄이 내란입니까? 왜 그러한 것에 대해서 조사하라고 하는 데 총장님은 단호하게 아직 결정되지 않은 내란에 대해서 조사를 할 때 아니라고 대답하지 못합니까?

우리 군이, 명령에 따른 우리 군이 내란군입니까? 내란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데리고 있는 부하가 내란군입니까?

○육군참모총장직무대리 김규하 제가 내란군이라고 표현한 적은 없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러니까요. 12·3 내란이라고 언급하고 그거에 대해서 조사하라고 하면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우리 부하는 명령에 복종했기 때문에 그것이 내란이라고 결정이 되면 그때 조사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태도가 옳습니다. 아무리 같은 포병, 전직 미

사일사령관 출신의 위원님이 질의하셔도 군복을 입은 사람은 아닌 건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7월 25일 날 현 국방부장관이 취임한 이후에 두 달 동안 국군장병의 사망자 수는 총 14명입니다. 총기 자살사고가 3건이나 발생했습니다. 국방부에서는 사고 연결고리를 차단하기 위해서 전군 특별 부대정밀진단을 지시했지요. 그 정밀 기간 중에 사고가 3건 발생했습니다.

윤 일병 사건 그다음에 이후에도 전군 부대정밀진단 실시했습니다. 부대정밀진단은 새로운 조치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대로 하려면 지금처럼 각 군에서 항상 대안을 마련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부대가 활동을 잠시 멈추고 실질적으로 진단하고 조치해야만 국민 여러분의 걱정과 우려를 불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살 예방 종합시스템은 식별·관리·분리가 핵심인데 자살 우려자를 어떻게 식별하는가 하는 구체적인 해결책이 지금 현재는 빠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고가 발생하면 대책은 있지만 절박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PPT를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우리가 부대관리주라는 거를 시행했습니다, 부대관리훈령에 따라서. 사고가 자꾸 생기니까. 왜? 사고는, 사건은 항상 훈련과 휴식의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훈련을 하고 그다음에 훈련이 전술훈련으로 이어지고 그러고 나서 다시 훈련의 결과 피곤한 장병들에게 휴식을 주고 사고 예방이라든가 병영 신상결산이라든가 장비 정비, 보급품 확인 또 훈련 간에 발생한 비문에 대한 보안 활동 등을 통해서 부대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대관리주라는 것이 꼭 이름은 똑같지 않아도 되지만 각 군에서 그냥 대책을 산발적으로 하고 부대를 안정시키겠다고 여러 가지 제도를 시행하는 게 오히려 불안할 수 있으니 좀 잠시 스톱 뎅킹(stop thinking). 잠시 멈추고 부대를 운영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건의를 드리고요.

또 하나는 육군총장님, 3월 26일부터 19일까지 사고가 7건 발생했고 5명이 사망하고 11명의 부상자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렌터카에 총기를 내려놓고 간다든지 아니면 훈육장교가 생도들이 근무 서고 난 이후에 총기를 임의로 불출해서 자살사고를 낸다든지.

이렇게 사고가 났는데, 이 사고는 제가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시스템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지키지 않는 매너리즘에 빠진 절차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도가 없어서 문제되는 게 아니고요. 군이 창설된 이후 사고 날 때마다 얼마나 많은 보완 요소가 있었습니까? 보완 요소가 많다 보니 오히려 그거보다는, 보완 요소를 다시 만드는 것보다는 보완 요소를 지키는 걸로 돌아가는 게 어떨까. 그래서 매뉴얼을 자꾸 만드는 것보다는 아주 기초적인 매뉴얼을 다시 한번 지키는 그러한 시스템을 갖춰 가는 게 어떨까요, 총장님.

○육군참모총장직무대리 김규하 예, 동의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고민하는 것은 그러면

그 매뉴얼을 지킬 수 있는 여건을 위해서 상급자들이 뭘 했냐 질문을 던졌을 때 그 부분이 취약했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개선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강선영 위원 예,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매뉴얼을 너무 많이 만들고 예하부대에서 해야 할, 지켜야 할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감하게 없앨 건 없애시고요. 정말 행동으로 움직이는 부대가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해야 할 것을 명확하게 정리해서 그동안에 하라고 많이 지시한 것들 이번에 없애 주시고요. 대대장으로부터 예하부대 행보 관까지 할 일을 아주 핵심적인 것만 할 수 있도록 줄여 주시는 노력도 오히려 같이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육군참모총장직무대리 김규하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저 신상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예, 김병주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위원 강 위원님이 표현의 자유는 있습니다. 제가 내란에 대한 용어를 썼더니 내란이 아니라고 하면서, 미사일사령관 한 사람이 얘기하니까 선배 미사일사령관 말을 듣고, 또 육군총장은 내란이라는 용어에 동의를 안 하는데…… 너무나 어처구니없습니다. 내란은 국헌문란이 돼서 내란인 겁니다. 국헌문란 행위라고 하면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은 국가의 기본조직을 파괴·변혁하는 의미고 헌법에 의해서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한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 국헌문란이고 이것은 명백한 내란입니다.

합법적인 비상계엄이라 하더라도 행정부와 사법부를 관장하는 것이지 실제 입법부인 국회를 침탈하는 건 안 됩니다. 불법적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선관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법적으로 헌법기관인 여기를 침탈하는 것을 온 국민이 지켜봤습니다. 이것은 현행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내란수괴를 파면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란특검이 이루어지고요. 이것은 명백한 내란입니다.

육군총장! 이것이 내란이 아니라고요? 내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육군총장의 첫 번째 임무는 육군에서 내란을 척결하고 다시는 이런 역사를 반복하지 않게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불법적인 비상계엄이지만 이것은 국회를 침탈했고 선관위를 침탈했기 때문에 명백한 국헌 위반에 내란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의식이 없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위원장 성일종 위원장으로서 이 부분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쪽에 와 계신 총장님들은 공직자입니다. 여당 위원님들 계시고 야당 위원님들 계십니다. 여당 위원님들은 내란이라고 충분히 정치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 야당 위원님들은 내란이 아니고 불법계엄이거나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정치적인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에 왔었을 때 내란을 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게 법원에서 재판 중에 있습니다. 아직 법원의 판결이 안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김병주 위원 아니, 현행범이잖아요. 무슨 말씀을 하세요?

○위원장 성일종 그래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 김병주 위원 아니, 국회를 침탈하는 것을 방종으로 다 봤는데 뭘 현행법을 법률 따집니까?
- 위원장 성일종 조용히 하세요. 그러니까 여당은 그걸 주장하라는 거예요.
- 박선원 위원 위원장이 무슨 자격으로 정리를 해?
- 위원장 성일종 자, 그래서 지금……
- 김병주 위원 위원장님은 그것 정리할 자격이 없습니다.
- 위원장 성일종 왜 없습니까?
- 김병주 위원 왜 내란에 대해서 정리합니까?
- 위원장 성일종 왜 없습니까? 그러면……
- 김병주 위원 아니, 온 국민이 계엄군이 국회를 침탈하는 걸 봤는데!
- 위원장 성일종 여당은 주장하세요, 그렇게.
- 김병주 위원 주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국헌문란 행위지요. 내란인데 무슨 정리를 합니까?
- 위원장 성일종 자, 그런데 야당은 야당 위원의 이야기가 있어요.
- 박선원 위원 그러니까 내란당 소리 듣는 거예요.
- 위원장 성일종 야당 위원이 주장할 수 있는 것을 여당 위원이 그것을 왜 강요하는 거예요?
- 김병주 위원 아니, 저의 말에 시비를 걸고 미사일사령관 운운하고, 여기에 미사일사령관이 왜 나오는 거예요?
- 위원장 성일종 그리고 저기에 앉아 계신 우리 지휘관들은 법원의 판단이 안 났기 때문에……
- 박선원 위원 내란이라고 하는 객관적 상황이 있었잖아요?
- 위원장 성일종 내란이라고 규정해서 다음에 법원의 판단이 내란이 아니라고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 박선원 위원 내란이라는 객관적 상황이 있잖아요?
- 김병주 위원 아직도 내란에 대해서 국방위원장이 제대로 개념이 없어요?
- 위원장 성일종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정확한 중심을 잡고 정확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 박선원 위원 성일종 위원장이 국방위원장을 하면 안 되겠네. 내란을 옹호하는 위원장이 무슨 국방위원장을 해?
- 위원장 성일종 모든 게 법원의 판단이 나지 않았어요.
- 박선원 위원 뭘 소리예요, 현재 판결이 있었는데?
- 위원장 성일종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잖아요, 다?
- 박선원 위원 현재 판결이 있잖아요!
- 위원장 성일종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여당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 박선원 위원 위원장! 법원보다 가장 높은 판결 기구가 현재 아닙니까?
- 위원장 성일종 그러니까 여당 위원이 주장할 건 주장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저쪽에 앉아 있는 공직자들한테 그걸 강요할 권리는 없는 거예요.
- 박선원 위원 강요한 게 아니라 법적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위원장 성일종 왜 그것을 강요합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권한으로?

○박선원 위원 위원장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위원장 성일종 야당 위원은 그에 따라서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김병주 위원 내란에 여야가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 성일종 자,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일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하기 전에 위원님들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정치적 주장 또 여러 가지 의견들을 다양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또 각 당의 입장이 틀리기 때문에 국회에서 의견이 틀린 부분들에 대해서 왜 격론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보장을 하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의견들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질의를 하면서 그래도 감정적으로 하는 것보다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그리고 주장하고 싶은 것 있으면 얼마든지 편안함 속에서, 국민들이 바라보고 계신 회의이기 때문에 시정하고 계신 장병들이나 또는 국민들을 생각해서라도 가능하면 차분한 가운데서 질의를 해 주십사 하는 위원장으로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원 위원 총장님들 노고 많으십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임명하신 총장님들을 상대로 질의를 하려고 하니 참 쉽지 않습니다.

김규하 총장직무대리님, 작년 3월부터 9월 사이에 한남초등학교 가신 적 있습니까? 기억 안 나십니까?

○육군참모총장직무대리 김규하 4월에 간 적 있습니다.

○박선원 위원 4월에 가셨지요?

○육군참모총장직무대리 김규하 예.

○박선원 위원 거기서 어디로 가셨습니까?

○육군참모총장직무대리 김규하 김용현 경호처장이 티타임을 하자고 해서 갔었습니다.

○박선원 위원 그래서 몇 분이 같이 만나셨습니까?

○육군참모총장직무대리 김규하 그때 당시에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저는 그 오는 줄은 몰랐고 3명을 한남초등학교 앞에서 봐서 그때 같이 부른 줄 알았습니다.

○박선원 위원 그러셨지요?

○육군참모총장직무대리 김규하 예.

○박선원 위원 총장님, 그렇게 의심을 받고 계시잖아요. 강호필 지작사령관도 그런 그룹에 끼어서 가시고 총장직무대리도 한남초등학교에 각자 오서 가지고 경호처에서 내놓은 차 타고 이승해서 공관 단지 내지는 관저 단지라고 하는 그곳에 사전기록 안 남기고 경호처장을 만나러 갔어요. 갔는데 다른 장군들이 있어요. 다른 사령관들이 있는데 이번 불법 비상계엄의 주역들이에요.

수방사령관 하셨지 않습니까?

○육군참모총장직무대리 김규하 예, 그렇습니다.

○박선원 위원 그렇지요?

○육군참모총장직무대리 김규하 예.

○박선원 위원 그다음에 지작사부사령관 하셨지요?

○육군참모총장직무대리 김규하 예.

○박선원 위원 그다음에 52사단장 하셨지요?

○육군참모총장직무대리 김규하 예.

○박선원 위원 최전방에 최근에 근무하신 적 있습니까? 원주를 최전방으로 한다면 내가 인정하겠어요, 미사일사령부를. 그렇지만 지금 우리 군이 어느 때보다도 기강을 바로 잡고 다시 태어나야 되잖아요.

헌법재판소에서 왜 파면이 됐어요? 국헌문란행위를 했기 때문에 파면이 된 겁니다. 국헌문란행위 아까 김병주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을 통해서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고 하는 행위, 폭동 그것이 내란이고 국헌문란행위입니다, 법적 용어고 이미 헌재에서 1차 판단을 받았고.

지금 왜 구속해서 기소가 됐겠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총장대리께서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는 거 제가 모를 줄 알아요? 내가 여당 위원이니까 그런 말 안 하려고 그랬어요.

○육군참모총장직무대리 김규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선원 위원 나중에 이야기하세요.

한번 보십시오. 우리 군의 최정예 부대 아닙니까. 방첩사, 정보사, 수방사, 특전사 거기에 미사일사령부, 52사단장, 지작사부사령관 하셨고 우리 군의 미래를 책임지는 미사일사령부사령관까지 하신 분이 가셨잖아요, 그 자리에. 그걸 모르고 우리가 내란에 대해서 계속 환기시키는 거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총장께서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신 총장이시고 어느 때보다 군기강과 전비태세 완비에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될 군정권을 가지신 분들 세 분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좀 마음을 다르게 가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세 분 총장님들께 대통령께서도 기대가 있고 또 말씀도 계셨을 텐데 그 뜻을 잘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세 분 총장님이 계시니까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계룡대 체제가 과연 우리 군에게 건강하게 작동하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있습니다. 해군은 바다에서 떨어져 있고 공군도 공군에서 떨어져 있습니다. 육군도 최전선에서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의 남침 때문에 대전 이남에 새로운 교두보, 전략적 침로를 다시 확보해서 적들에게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증원 전력과 함께 롤백할 수 있는 전쟁의 중심 틀을 계룡대에 하나 갖춘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그러나 벌써 몇십 년 지났는데 그 계룡대에 장군님들만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현장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군정에서 각 군의 현장을 아셔야 되는데 장군님들은 투 스타, 쓰리 스타, 원 스타까지 계룡대에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그래서 아무리 현장에 가까이 가고 싶어도 사단이나 이런 데 가면 또 그쪽에 부담 줄까 봐 스스로 저어하시게 되고 그래서 아무래도 현장에서 멀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군정 차원에서의 지휘서신을 내리시더라도 각 군에서 총장님들 세 분 모두 현장 방문

도 많이 하시고 예하에 부담되지 않는 수준에서 점검하셔야 됩니다. 장군들이 점검하고…… 긴장 안 하시는데 밑에서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그 사건·사고를 다 어떻게 막습니까.

공군총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공군총장은 우리 군의 여러 파트 중에서도 정말 기술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지요?

○공군참모총장 손석락 예, 그렇습니다.

○박선원 위원 그리고 우리가 대북 억제 중에서 확실하게 장악하고 있는 게 바로 제공권 아닙니까?

○공군참모총장 손석락 예, 그렇습니다.

○박선원 위원 그런데 업무보고를 보면 죄송하지만 한 페이지는 비행사고 관련 후속조치고 나머지 두 페이지가 지상사고예요. 사실 이번 사고……

우리 공군의 사고의 본질은 지상사고입니까?

○공군참모총장 손석락 비행사고가 더 중대한 부분입니다.

○박선원 위원 그렇지요, 비행사고가 더 중요하지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3월 6일 포천에서 발생한 사건 좌표 입력을 잘못했다 이거 인재입니까, 기체 결함입니까?

○공군참모총장 손석락 인재입니다.

○박선원 위원 그렇지요. 그다음에 4월 18일 KA-1 공군 통제공격기가 훈련 중에 기관총과 연료탱크 등 무장을 지상으로 낙하했다 이거 기체 결함입니까, 조종사 실수입니까?

○공군참모총장 손석락 전자와 동일합니다.

○박선원 위원 그렇지요. 그다음에 6월 11일 알래스카 훈련 중 조종사가 비상탈출하고 기체 파손되는 사고 이거 KF-16 잘못입니까, 조종사 잘못입니까?

○공군참모총장 손석락 조종사들의 임무계획 실수입니다.

○박선원 위원 그다음에 7월 13일에 JADIZ 이것에 대해서 JADIZ에 미리 이야기 못 하고 급유를 위해서 비상 착륙하는, 잘못하면 충돌이 일어났을 뻔했던 이 일 조종사 실수입니까, C-130 수송기 잘못입니까?

○공군참모총장 손석락 조종사와 업무 담당자의 실수입니다.

○박선원 위원 그렇지요. 그다음에 9월 13일 청주기지, 청주기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F-35, F-16 거기서 훈련을 위해서 이륙 활주 이탈, 타이어 파손 이것은 조종사 잘못은 아닐지 모르지만 정비 쪽 잘못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군참모총장 손석락 해당되는 부분은 좀 더 조사를 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조종사와 정비 실수는 아닌 것으로 판단을 하고 외부의 충격에 의한 부분이라 그 외부의 충격에 대한 재발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박선원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군의 제공권 장악부터 대북 억제의 핵심, 우리 군이 다 중요합니다. 해군, 육군 다 중요하고 미사일사령부도 중요하고 사고 낸 드론작전사, 방첩사 다 중요하지요, 특전사 말할 것도 없이. 그렇지만 우리가 선제적으로 타격해서 적의 전략지점을 사전에 억제하고 때릴 수 있는 그 역량은 공군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군참모총장 손석락 명심하겠습니다.

○박선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일종 박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장님들, 몇 가지만 좀 물을게요.

육군총장님, 지금 여러 사건이 났지요?

○육군참모총장직무대리 김규하 예.

○위원장 성일종 안전관리 미비로 또 탄약이나 총기 관리 미비로, 올해 사고가 났는데 안전관리 미비로 일어난 사건이 몇 건이에요?

○육군참모총장직무대리 김규하 제가 구체적인 건수까지는 기억을 못 하는데 여러 건수가 나왔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안전관리 부분만 잘 관리를 하면 사고 줄일 수 있지요?

○육군참모총장직무대리 김규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그러면 안전관리에 대한 교육은 또 지침은 어떻게 내렸어요? 뭐뭐를 어떻게 하라고 내렸어요?

○육군참모총장직무대리 김규하 안전관리와 관련된 것은 저희가 안전관리 규정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강조사항도 있고 다양한 지침을 내렸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그러니까 핵심적으로 안전관리를 어떻게 내렸어요?

○육군참모총장직무대리 김규하 일단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안전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 전투준비안전단을 중심으로 한 시스템이 있는데 그 시스템을 준수하는 것들에 대한 준수를 안 해서 안전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진단해서 좀 취약했던 거 또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지침도 내리고 강조사항으로 내렸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지금 그렇게 추상적으로 안전관리에 신경 써라 이래서는 안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총기 어떻게 할 건지 탄약 어떻게 할 건지, 그렇지요?

○육군참모총장직무대리 김규하 예.

○위원장 성일종 훈련 중 어떻게 보고 받고 어떻게 매뉴얼대로 몇 명이 움직이라든지 이걸 구체적으로 내려 달라, 그래야 그게 지시가 정확하게 내려가서 할 거 아닙니까? 안전관리라고 하는 말 자체가 광의적 개념이거든요. 이것을 좀 분석을 해 보세요. 총기 관리를 잘했으면, 탄약 관리를 잘했으면 저는 줄일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총장의 지침이 부대로 내려가야만이 이게 될 것 같다.

손 총장님.

○공군참모총장 손석락 예, 공군총장입니다.

○위원장 성일종 지금 공군 같은 경우는 방금 박선원 위원님 지적하셨는데 100% 맞는 얘기거든요. 그렇지요?

○공군참모총장 손석락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지금 공군이 육군이나 이런 쪽보다는 좀 자유롭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지 않는가요?

○공군참모총장 손석락 각자의 분야가 있는데 나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그래서 공군 같은 경우에 안전사고인데 이 안전사고를 사전에 교육만

잘 했으면 저는 굉장히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공군 역사상 민간인에 오폭한 거는 셋을 수 없는 오점이에요. 인정하시지요?

○공군참모총장 손석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또 알래스카에 우리 훈련 들어갔을 때 사고 난 거 같은 것 등 여러 가지가…… 또 크레모아 사고도 있을 수가 없어요. 육군도 마찬가지예요. 해병대도 마찬가지예요. 크레모아 같은 경우는 연습용과 실제 크레모아가 이게 구분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육군참모총장직무대리 김규하 연습용과 실체는 구분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그런데 이게 어떻게 섞여 가지고 터지냐고요.

제가 소대장 할 때, GP 들어가서 소대장을 하는데 중대에서 훈련하다가 ‘야, 이거 이렇게 하면 터지는 거야’ 하고 놀렸는데 진짜 놀라서 터져 가지고 한 사람이 죽고 여러 사람이 다쳤었어요, 같은 중대에 있어서도. 그렇게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터지냐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훈련을 할 때 이조차도 연습용인지 실제 크레모아인지 확인도 안 하고 교육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있을 수 없는 안전사고가 난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3군 총장님과 해병대사령관 나오셨는데 너무 큰 조직이기 때문에 왜 이런 저런 안전사고를 강조하고 강조해도 또 다른 사고가 안 나오겠습니까. 일탈을 해서 개인적으로 겪게 되는 그런 부분에 사고가 안 날 수는 없지만 안전만큼은 우리가 확보만 하면, 교육만 제대로 하고 이 부분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우리가 훈련에 임하면 분명히 줄일 수가 있다고요. 이거는 지휘관들의 책임입니다, 의무고.

오늘 부로 다시 한번 이 안전사고에 대한 것은 총장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아주 구체적으로 생활에 일상화될 수 있도록 안전에 대한 교육과 지침을 정확하게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주질의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보충질의의를 하려고 하는데 신청하신 위원님들 계시지요?

백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3분 드리겠습니다. 간사 간 합의에 의해서 3분으로 했습니다.

○백선희 위원 일단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사건·사고에 대한 인식의 폭이 너무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사건·사고 관련해서 오늘 저희가 국방위를 진행을 하는데 자살 사건뿐만이 아니라 경제범죄 또 폭행 문제 이런 것까지 확인해 준 곳이 있는가 하면—해군본부에서 그렇게 확인해 줍니다—공군에서는 정말 비행사고만 했습니다. 사람에게 대한 거는 없어요.

우리가 사건·사고 오늘과 같은 자리를 마련한 것은 이런 안전사고 발생하는 거를 예방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우리 이 안에서 군인들이 다치거나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있거든요. 그래서 인식의 폭이 굉장히 좀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총체적으로 재고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저도 자살과 관련해서 준비를 했는데 앞서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좀 중복되는 것을 제외하고요. 20·30대 사망원인 1위가 자살입니다. 군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군 안에서 자살이 일어났을 때는 자살로 이르게 하는 어떤 영향, 요인들이 있을 거예요. 더 민감하게 보셔야 됩니다.

지금 자살 통계를 보면 2024년에 일흔다섯 분이 돌아가셨는데 장교 열 분, 준사관 한 분, 부사관 서른다섯 분, 너무도 많습니다. 군무원도 다섯 분이 계시고 병사 스물네 분이 계십니다. 이거 결코 적은 수가 아니거든요. 원인을 분석을 해야 되는데 원인을 제대로 분석하고 있지 못하는 것 같고요. 다양한 원인을 분석을 해야지만 대책도 마련할 수 있고 특히 왜 이렇게 부사관의 자살 수가 많이 증가하게 됐는가는 뼈 아프게 보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자살과 관련해서 우리가 예방도 중요하고 사고 수습도 중요한데 그 이후에 자살로 인한 영향을 보면 유가족만 계시는 게 아니거든요. 같은 부대에서 자살하는 동료 가 발생을 하게 되면 나머지 군인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마 그들까지 생각을 못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후의 군생활이 너무나 어렵지요. 그러면 적응 문제라든가 우울증 문제라든가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폭넓게 보셔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종합적인 원인이 있고 그리고 환경적인 요소도 있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 개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도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지금 스물다섯 분의 자살 사망자가 계시는데 이것을 정말 몇 년 안에 제로로 만들 각오를 하고서 하셔야 되는데 오늘 국방부에서 아무도 나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저는 매우 유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국방부 중심으로 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종합적으로, 합동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지금 편차가 너무 심하거든요. 어디는 A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하는데 어디는 B만 하고 있고 어디는 관심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대책 마련한 것도 다르고요. 그래서 국방부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정말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성일중 백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득 위원 해병대사령관님!

○해병대사령관 주일석 예, 위원님.

○임종득 위원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육·해·공군하고는 다르게 비공개로 했어요. 그래서 뭐가 있지 싶어서 아무리 뒤져 봐도 비공개 이유가 없는 걸로 보이는데 왜 비공개로 했지요? 짧게 빨리 이야기하세요. 저 시간 없어요, 지금 물을 게 많아.

○해병대사령관 주일석 사건·사고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임종득 위원 비공개. 지금 일부러 이러는 거예요?

○해병대사령관 주일석 자살 사고라 저희가 좀……

○임종득 위원 다른 데는 자살 사고 아닙니까?

○해병대사령관 주일석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임종득 위원 다른 데는 수사가 진행 중인 것 아니에요? 그리고 수사 진행과 관계가 전혀 없어요, 지금. 언론보도에서 이 사건이 ‘운전병이 차량 문을 닫다가 운전석에 거치되어 있던 총기가 격발됐다’ 이렇게 보도됐지요?

○해병대사령관 주일석 예.

○임종득 위원 이게 수사단에서 제공한 겁니까?

○해병대사령관 주일석 아닙니다. 처음에는 지휘관 대 지휘관 해서 밑에 상황 보고한 내용을 갖고 식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임종득 위원 그러면 이게 사실이 아니지요?

○해병대사령관 주일석 사실이 아닙니다.

○임종득 위원 그러면 해병대에서 정정보도 요청했습니까? 보도 요청을 했냐고요, 언론에.

○해병대사령관 주일석 언론사에 공지는 했습니다, 사실은.

○임종득 위원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총기관리수칙이나 총기 격발 구조를 놓고 보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군 생활을 오래 하면서 이래 가지고 사고 났다는 소리는 들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정확하게 밝혀야지요, 사고의 원인이 뭔지를.

사고의 원인이 뭘니까? 왜 일어난 거예요?

○해병대사령관 주일석 개인의 문제로 해서……

○임종득 위원 개인의 문제가 뭘니까?

○해병대사령관 주일석 주변이나 여러 가지 정황이나 그런 것들, 저희가 개별적으로 다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는.

○임종득 위원 지금 여기 보고 내용에 보면 원인 분석과 대책과 관련되어 또 자살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뭐예요, 이것? 뭐가 지금 뭣뭣하지 않은 겁니까?

○해병대사령관 주일석 뭣뭣합니다.

○임종득 위원 뭣뭣하면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두 번째, 훈련에 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군은 훈련이 아주 중요하지요?

○해병대사령관 주일석 예, 그렇습니다.

○임종득 위원 그런데 정동영 통일부장관이 ‘사격 훈련과 실기동 훈련 중단하는 게 맞다. 국방부와 협의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혹시 해병대에도 이런 관련된 지시를 받은 적이 있나요?

○해병대사령관 주일석 지시받은 건 없습니다.

○임종득 위원 만약에 지금 9·19 군사합의 복원과 관련돼 가지고 이런 요구들이 들어왔을 때 해병대사령관은 어떻게 할 겁니까?

○해병대사령관 주일석 전체적으로 현재까지 그런 것들이 공식적으로 검토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주까지도 저희들은 정상적으로 사격을 했고 연례적 방어적인 성격의 훈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종득 위원 아니, 내가 묻는 말을 지금 돌리고 있는데.

그러면 9·19 합의가 시행되면서 해병대 차원에서 훈련을 제대로 못 해 가지고 입은 피해나 문제가 너무나 많았지 않아요?

○해병대사령관 주일석 내륙순환훈련을 통해서 사격술은 유지했습니다.

○임종득 위원 그렇게밖에 답변 못 하겠어요?

1분만 더 주십시오.

PPT를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해병대사령관이 9·19 합의에 의해 가지고 대비태세를 유지하는 거나 장병들이 훈련하는 데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지금 사령관이 이야기하지 못할 정도면 사령관 자격 없어요. 저 내용 보이지요? 지금 서해5도에서 훈련을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물에 나와서 훈련하면서 든 비용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대비태세에 문제가 생긴 것 아니에요. 순수하게 비용에 관련되는 게 저만큼이에요. 130억 원이나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해병대사령관은 그렇게 답변해요?

○**해병대사령관 주일석** 위원님, 저희들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격은 필요합니다. 사격은 저희들이 어떠한 방식으로든 정상적으로……

○**임종득 위원** 아니, 군복을 입은 군인이…… 지금 정치인이에요?

○**해병대사령관 주일석** 그거랑 그거랑은 별개의 사항인 것 같습니다. 사격은……

○**임종득 위원** 별개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사격을 못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일어나는, 지금 훈련을 못 시키는 문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예산의 문제, 이 부분을 왜 이야기를 못 하나고요. 그러면 다음에 요구하면 그대로 할 거예요? 누구 눈치 보는 거예요?

○**위원장 성일종** 임종득 위원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해병대사령관 말씀하실 것 있으십니까?

○**해병대사령관 주일석**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일종** 해병대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유족이 대외적으로 발표를 안 했으면 좋겠다고 요청이 있지 않았었나요?

○**해병대사령관 주일석** 예, 고인의 명예가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항이라 대부분은 다, 가족들도 현재까지 동의는 다 된 상태이지만 정확하게 저희들이 사망 원인을 발표하거나 하지는……

○**위원장 성일종** 아니, 그러니까 국회에 나왔을 때 그런 것을 말씀하시라는 말이에요. 안 하시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것 있으시면 이렇게 말씀을 해 드리세요.

다음은 한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호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1일 ‘세계 군사력 5위를 자랑하는 군사력, 국방력을 가지고도 외국 군대가 없으면 자주국방이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는 일각의 굴종적 사고’라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국민들이 잘 아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세계 5위라는 군사력을 누가 평가했느냐? 여기 총장님들 중에서 누가 평가한 건지 아십니까? 이건 GFP라고 글로벌 파이어파워(Global Firepower)라고 하는 여기에서 만든 지수인데 이 통계의 가장 핵심이 뭐냐 하면 핵무기는 뺐어요. 핵무기를 뺐기 때문

에 핵무기가 있는 나라와 없는 나라는 이견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공군총장님, 일본이 항복할 때 일본에 핵무기 몇 발 투하됐습니까?

○공군참모총장 손석락 두 군데 투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때 일본에 지상전력이든 공군이든 해군이 없었습니까? 다 있었지요?

○공군참모총장 손석락 그렇습니다.

○한기호 위원 있었지만 핵무기 때문에 항복한 겁니다, 무조건 항복. 이렇게 핵무기가 무서운 건데 북한은 지금 핵무기가 있는 걸로 평가합니까, 없는 걸로 평가합니까, 공군총장님?

○공군참모총장 손석락 평가에 대한 부분은 공식적이지 않지만 저희는 그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기호 위원 대비를 뭐로 해요? 핵무기는 핵무기로 대비해야지.

○공군참모총장 손석락 재래식 무기로도 가능한 부분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한기호 위원 가능한 부분이라는 건 전체에 대한 대비가 안 되는 거예요. 2040년도까지 약 400발 이상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핵무기가 없는데 이렇게 평가한다, 그러면 이 GFP에 대한 지수로써 평가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거예요. 이견 정식 국가기관도 아니고 공신력이 있는 국제기구도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건 안 맞아요.

과거에 선진화재단에서 우리 전투력이 얼마나 되느냐 이걸 연구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얼마로 나왔는지 아세요? 한번 보세요. 여기에서 평가했을 때 북한은 6위, 우리나라는 10위로 평가했어요. 이견 한국에서 정식으로 연구한 데이터예요. 그런데 실제로 공신력이 없는 기관에서 연구한 걸 가지고 평가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뭐까지 포함을 시켰냐, 저기에는 핵무기를 포함시키고 생화학무기까지 포함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북한에 비해서 우리가, 북한은 43위, 우리가 5위……

1분만 더 줘요.

○위원장 성일종 예, 1분 더 드리십시오.

○한기호 위원 우선 먼저 육군총장님, 그 말이 믿어지십니까, 북한은 43위, 우리가 5위라는 것에 대해서? 의아심이 들지요?

○육군참모총장직무대리 김규하 다양하게 전력평가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상이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한기호 위원 그렇지요?

해군총장님은요?

○해군참모총장 강동길 예, 동의합니다.

○한기호 위원 제 말에 동의하는 거예요?

○해군참모총장 강동길 예.

○한기호 위원 공군총장님은?

○공군참모총장 손석락 평가 지수에 따라서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한기호 위원 해병대사령관님은?

○해병대사령관 주일석 저도 동의합니다.

○한기호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어느 특정한 데서 연구해서 나온 데이터 하나

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소련과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얼마큼 차이가 났냐? 여기도 소련군이 엄청 많았지만 결국은 철수했어요. 베트남 전쟁에서 얼마큼 차이가 났냐? 베트남에서도 결국은 미군이 졌어요. 지금 미국과 탈레반 전쟁에서도 미국이 철수했어요. 그래서 전력 지수로 평가한 이것 가지고 전쟁하는 건 아닙니다.

총장님들,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일종 한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대식 위원 육참총장님, 좀 전의 질의에 이어서 질의를 할게요.

5년 동안 부사관 희망 전역자가 7000명이 넘는다, 사망사고도 부사관 계급에서 많이 발생한다, 어떤 연관관계가 있다고 보느냐는 그 질의에 총장께서 답변을 했습니다. 했는데.

정부에서는 중앙 간부가 처우가 열악해 가지고 군을 떠난다, 그래서 예산 증액이 많이 필요하다,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물론 본 위원도 일정 부분 그런 부분도 있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예산이 확대되면서도 불구하고 간부 이탈은 막지 못했다, 사망사고 증가도 막지 못했다 이런 문제에 도달한다 그러면 어느 하나가 원인이 되어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반복해서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자꾸 하나, 둘, 셋, 넷 누적이 되다 보니까 이런 암담한 상황에 왔을 수도 있다. 지금 대통령께서도 그렇고 국방부장관께서도 여러 가지 지시를 했지만 백약이 무효이다 이런 지경까지 왔었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인구절벽으로 인해서 병력 감축은 불가피하고 강력한 국방개혁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는데 지금 구조적·문화적 악습을 조속히 탈피하지 못한다면 우리 군은 더욱더 어려운 상황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육군참모총장직무대리 김규하 동의합니다.

○강대식 위원 국회나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진다고 해서 짧은 시간 내에 이 문제가 단번에 해결된다 하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맞지요?

○육군참모총장직무대리 김규하 예, 그렇습니다.

○강대식 위원 그래서 수많은 구조 속에서 어느 하나가 해결되면 연쇄적인 효과를 발휘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사차 찾아왔을 때 참모총장이 이야기했던 그 내용도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계속 발로 많이 뛰어라. 정치인들도 마찬가지로지만 현장에 답이 있다. 장군들이 어느 한곳에 머무르지 말고 계속적으로 군을 좀 방문하라’고 하는 소리를 개인적으로 부탁한 것 들으셨지요?

○육군참모총장직무대리 김규하 예.

○강대식 위원 그래서 저는 그 진솔한 고백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시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우리 3군 참모총장님과 사령관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모두에 이야기한 오늘 보고 내용을 서로 좀 공유를 하면서 이런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니까 참 잘되더라, 이런 부분은 왜 육군이 잘되는 거고 공군이 가지고 가서 좀 적용할 수도 있고 공군 잘되는 것 해군이 가져와서 할 수도 있고 해병대도 갈 수도 있고, 서로 이렇게 잘되는 부분은 좀 공유를 해서 빠른 시간 안에 이 문제점들이 해결될 수 있는 그 방안을 서로 머리를 맞대서 공유했으면 참 좋겠다,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앞으로 총장님하고 사령관님 네 분, 그렇게 해 주실 겁니까?

○육군참모총장직무대리 김규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군참모총장 손석락 예, 알겠습니다.

○해군참모총장 강동길 예.

○해병대사령관 주일석 예.

○강대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위원 12·3 내란 당시에 대다수 국민들은 그 방송을 보자마자 이것이 잘못됐다, 크게 잘못됐다고 느꼈습니다, 조건 반사적으로. 그래서 많은 국민들은 목숨을 걸고 여의도로 와서 계엄군을 막았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육군참모총장직무대리 김규하 예.

○김병주 위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들은 목숨 걸고 국회 담장을 넘어서 국회로 들어와서 비상계엄 해제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육군참모총장직무대리 김규하 예, 알고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12·3 내란이 일어났을 때 114만 공무원 중에 유일하게 한 명 법무부감찰관 류혁만 사표를 냈습니다. 법무부장관이 국장급 이상 회의를 소집하니까 그 회의에 본인도 참가 대상입니다. 참가하게 되면 내란에 부화수행한다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직을 던졌어요. 유일하게 직을 한 명 던졌습니다. 왜 우리 장군들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목숨까지 바친다고 매일매일 다짐하면서 국가가 무너지는데 목숨은 고사하고 직을 던지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까?

5·16 쿠데타 때 5·16 쿠데타를 막기 위해서 목숨 걸고 저항한 군인 있었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육군참모총장직무대리 김규하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한신 장군이라든가 거기 저항한 분 있습니다. 12·12 쿠데타 때 목숨 걸고 막으려고 하다가 죽음까지 당한 분도 있어요. 알고 있지요?

○육군참모총장직무대리 김규하 예.

○김병주 위원 왜 12·3 내란 때는 현재 군이 한 명도, 목숨은 고사하고 직을 던진 사람이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직을 던진 사람이?

○육군참모총장직무대리 김규하 없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현재 장군들은 반성하고 반성하고 또 반성해서 다시는 이런 역사상에 내란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란 척결에 앞장서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내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확히 인식해야만 됩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해군총장님, 12·3 비상계엄은 내란입니까, 아닙니까?

○해군참모총장 강동길 분명히 잘못된 행동이었습니다.

○김병주 위원 내란입니까, 아닙니까?

○해군참모총장 강동길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김병주 위원 개인적인 의견이요.

○해군참모총장 강동길 예,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내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병주 위원 총장님, 내란입니까, 아닙니까? 개인적인 생각.

○육군참모총장직무대리 김규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육군 전체를 내란군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김병주 위원 개인적인 생각.

○육군참모총장직무대리 김규하 내란은 맞습니다. 내란도 맞고……

○김병주 위원 계엄군에 왔던 사람은 내란을 했던 군이지요.

○육군참모총장직무대리 김규하 그런데 전체를……

○김병주 위원 됐어요.

공군총장님, 내란입니까, 아닙니까?

○공군참모총장 손석락 앞에서 말씀드린 두 총장님과 동일합니다.

○김병주 위원 해병대사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병대사령관 주일석 동일합니다.

○김병주 위원 육군총장님 하고 싶은 얘기 해 보세요.

○육군참모총장직무대리 김규하 12·3 계엄 때 장성단에서 아무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고 얘기 못한 것은 정말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 육군 전체가 내란군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12·3 계엄에 내란 형태로 참여한 일부 고위직 수뇌부들의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 그 상황을 정확히 모르고 단지 명령에 의해서 행동한 인원까지 전부 내란군으로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성일종 다음은 강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 여기 계신 총장님들, 해병대사령관님에게 어려운 질문을 정치인이 하는 것은 옳지 않아서 이 논의를 연장해서 가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분명히 대한민국 형법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건 심의 중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공군총장님, 공군 사고를 보니까 지난 3월 6일부터 9월 23일까지 사고가 6건이 있었습니다. 장비를 운영하는 군에서 장비 노후화라든지 일부 장비의 오작동 등은 어쩌면 예방할 수 없는 능력 밖의 것일 수 있다고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고가 난 것을 일부 보면 납득하기 어려운 사고가 있습니다. 전투기 오폭 사고, 외부 장착물 비정상 투하 사건, KF-16 유도탄 이탈 사고 2건, C-130 일본 통과 미승인받아서 자위대 출동한 것.

저도 유사하게 항공 경험을 했던 상황에서 보면 이것은 비행 전, 비행 중, 비행 후 절

차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그다음에 유도도로에서 타이어 펑크 나서 문제가 생겼던 것, 우리가 FOD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FOD 작업을 하는 두 가지 원인은 하나는 외부 떨어진 이물질로 인해서 손상되는 것도 방지하지만 또 하나는 그 떨어진 FOD가 우리 장비의 주요 부품이 이탈된 것은 아닌가를 확인하는 두 가지 목적이 있지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다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F-16을 몰던 조종사가 이륙을 하려고 하다가 타이어가 펑크 나서 목숨은 잃지 않아서 다행이기는 하나 그런 FOD가 생겼다는 것 그다음에 그 FOD가 무엇인지 모른다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유사 사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군기에 대한 문제를 정확히 짚어 주시고 이 부분은 사고가 정말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군참모총장 손석락 위원님 말씀 공감을 하고 개인의 실수에 의한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특히 지난 3월과 같이 국민들께 피해를 주는 그런 사건 사고는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잘하겠습니다. 또 말씀하신 부분 FOD 제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조사를 해 보고 이 부분은 다시 추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이제 각 군 총장님들 전체한테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7년 7월부터 지난해까지 군내 사망사고 현황을 다 뽑아 봤습니다. 그랬더니 643명이 사망했습니다. 일일 평균 0.23명이 사망했고요. 5~6일에 한 명씩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그중에 사망사고의 80%가 자살입니다. 과거에는 일병이나 이병들이 주로 자살했거든요. 그런데 최근의 자살 사고는 병장들한테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고의 원인이 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석을 하셔야 돼요. 일·이병이 들어와서 자살하는 경우는 통상 병영 부조리 때문에 적응이 안 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병장이 무슨 병영 부조리를 당하겠습니까, 고참인데. 무엇이 문제일까 한번 다시 살펴 주시고요.

우리가 기본에 충실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나. 군에 대해서 기본에 충실하지 않다, 군기 빠졌다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아요. 얼마나 지휘관들이 부대 관리를 위해서 힘쓰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줄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다른 시각으로, 과거의 매뉴얼대로 할 것이 아니라 다른 시각으로 자살 사고를 예방해야 된다는 부분의 관점을 바꿔서 예방 활동을 해서 자살 사고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총장님들, 사령관님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걸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육군참모총장직무대리 김규하 예, 노력하겠습니다.

○해군참모총장 강동길 예, 알겠습니다.

○공군참모총장 손석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수고하셨습니다.

박선원 위원님도 질의하십니까?

○박선원 위원 예.

○위원장 성일종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선원 위원 총장님들께 공통으로 하나 질문드릴게요.

주임원사 퇴직하면 공무원 기준 몇 급으로 끝나는 줄 아세요?

○해군참모총장 강동길 6급으로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원 위원 그렇지요? 6급이지요. 알고 계세요?

○육군참모총장직무대리 김규하 예, 그렇습니다.

○박선원 위원 그러면 생각해 보시자고요.

주임원사로 퇴임하시면 그때 연세가 어떻게 됩니까?

○해군참모총장 강동길 55세 정도 됩니다.

○박선원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작년에 국정감사 때 저희가 가서 부서관 주임원사들과 꼭 만나 보니까 이분들이 필요한 것은 명예와 예우, 그것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예산을 더 투입해서 급여를 올려 주는 게 결합을 해서 더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이 된다.

그래서 저는 법안을 여야 공히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주임원사가 정상적으로 근무해서 끝날 때 5급으로 끝날 수 있게 하자. 2~3년 공부해 가지고 고시 붙으면 사무관이잖아요, 5급. 그렇지요? 그런데 22~23세부터, 빠른 경우는 만 19살 때부터 55세까지 주임원사 근무하면 그 세월이 얼마입니까? 35~36년 되잖아요. 이분들이 끝나고 전역할 때 5급으로 끝나게 해 드리자 하는 공무원법을 개정하려고 그러는데 총장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육군참모총장직무대리 김규하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는 너무 좋습니다.

○박선원 위원 그러니까 부서관님들도 결국은 절대적인 수에서는 다른 병과나 인적 자원과 똑같이 줄게 돼 있잖아요. 줄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더 큰 자부심, 명예 그리고 자식들한테 할 이야기도 있고. 우리 정부에서 많이 쓰는 말이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우, 퇴직 이후의 직장 그리고 연금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정리해 봤을 때 6급으로 퇴직하는 것은 과하다, 이제 5급은 보장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우리 국방부 각 군 총장님들과 결합해서 국방위원들 전체적으로 한번 법안을 만들어 봤으면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짧은 질문 하나 드릴게요.

국가정보관리원 문제로 어수선했는데 우리 계룡대 C4I 체계 안전합니까?

○육군참모총장직무대리 김규하 점검했는데 큰 영향은 없습니다.

○박선원 위원 그러니까 합참 있는 국방부 말고 계룡대 쪽 C4I는 합동으로 관리하시는 겁니까?

○육군참모총장직무대리 김규하 일부는……

○박선원 위원 주로 육군총장님이 관리하시지요?

○육군참모총장직무대리 김규하 예.

○박선원 위원 그러니까 잘 관리하셔서 잘 지키시고 어떤 경우라도…… 우리의 사이버 적이 누굽니까?

1분만 더 주십시오.

우리의 사이버 적,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 그 외에도 있지만 대표적인 세력들 아닙니까? 호시탐탐 24시간, 7일, 365일 우리를 노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정보관리원 사건 이후로 우리 C4I에 대해서 뚫고 싶다 이러한 본능과 공격 심리가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좀 잘 지켜 주십시오 하고요.

해군총장님과 해병대사령관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장병들, 부사관들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그래서 자살이든 어떤 사고가 나면 다 순직 처리해 드리고 싶지요, 유가족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건을 은폐하고 왜곡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설령 극단적 선택이라 할지라도 국가에서는 순직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극단적 선택을 막고 설령 그렇게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분들을 순직으로 예우할 수 있으면 유가족들이 덜 억울하실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해군참모총장 강동길 예, 알겠습니다.

○박선원 위원 저는 군과 함께할 용의가 있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수고하셨습니다.

재보충질의를 요청하셨습니다.

한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호 위원 제 신상발언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점은 시간에서 제외시켜 주십시오.

우선 위원장님과 저와 추미애 위원과 임종득 위원은 12월 3일 날 계엄이 발령되는 날 유엔사 후방기지 방문하러 일본에 체류 중이었습니다. 물론 사전에 우리 위원장님이나 저나 이런 계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일본에 가지도 않았겠지요, 갈 수도 없는 거고. 강선영 위원님도 같이 가셨지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어느 위원님께서 그때 당시에 너는 뭐 했냐는 식으로 얘기하시는데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신상발언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은 당시에 계엄 해제에 대해서 본회의장에 참석할래도 할 수도 없던 위치입니다. 이런 점이 자꾸 거론되면서 얘기한다는 게 안 맞습니다.

우선 지금 총장님들하고 사령관님한테 묻는 과정에서……

이건 질의로 봐 주십시오.

○위원장 성일종 질의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한기호 위원 정치적인 문제를 군을 동원해서 해소하려고 했다는 점에서는 우리 당 출신 대통령이라도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정치는 정치고 군은 그렇게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은 국민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군인복무기본법에 명령권자는 자신의 명령이 위법한지에 대한 판단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명령권자에게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번 12월 3일 있었던 계엄은 최고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명령권자로서 의무를 저버렸고 국방부장관이 명령을 내리면서 의무를 저버린 겁니다.

물론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국회에 대해서 점거하도록 한 것은 분명하게 잘못된 것입니다. 또 계엄에 대한 것도 사전 모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전 모의에 동참을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점에서 사전 모임에 가담하지 않았던 대부분의 군 지휘관과 군인들에 대해서는 네가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도 5·16이나 12·12에서도 이러한 사전 모임에 중점을 두고 재판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다음에 계엄령이 하달됐을 때 이 하달된 계엄선상에서 실병력을 동원하는 위치에 있는 부대가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전사, 수방사, 방첩사 이런 데가 중요한데 이 계엄선상에 실병력을 동원하지 않는 부대 지휘관에게 ‘너에게도 책임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군인이 전투력을 운용하는데 운용하는 자체의 행위가 없는데 그걸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내가 병력을 동원할 때 불복한다면, 명령에 따른 것을 불복하려면 그땐 내가 군복을 벗을 수도 있어요. 난 수명을 못 하겠다, 불복하고 옷을 벗으세요. 그러나 수명하는 위치에서 내가 행동할 것이 없는데 여기에 대한 책임을 묻고 옷을 벗네, 안 벗네 하는 것은 군을 과도하게 희화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언론을 통해서 많은 군인들이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1시간 내 국회에서 이거에 대한 해제 의결을 해서 해제가 돼 버렸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 많은 군인들에게 계엄과 관련해서 도매금으로 얘기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위원장 성일종 수고하셨습니다.

임종득 위원부터 하셔야 하는데 손을 안 드서 가지고 제가 한기호 위원님 먼저 드렸습니다.

○임종득 위원 괜찮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그러면 이렇게 그냥 먼저 하시겠습니까?

○임종득 위원 그러세요.

○위원장 성일종 김병주 위원님 하시고 하시겠습니까?

○김병주 위원 먼저 해도 돼요.

○임종득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그러면 임종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종득 위원 지난 9월 26일 북한 상선 한 척이 백령도 인근 NLL 침범한 사실 보고 받았지요?

○해군참모총장 강동길 예, 받았습니다.

○임종득 위원 이 상선이 길이가 140m 정도 되는 덕성호였어요. 그렇지요? 얼마 정도 내려왔습니까?

○해군참모총장 강동길 정확한 수치는 아직, 수마일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득 위원 한 5km 정도 침범한 걸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어떻게 대응했지요?

○해군참모총장 강동길 경고방송하면서, 그 경고방송 안 들어서 경고사격까지 진행했습니다.

○임종득 위원 경고방송하고 이어서 기관총과 함포로 일곱 차례에 60여 발을 경고사격을 하고야 넘어갔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해군참모총장 강동길 알고 있습니다.

○임종득 위원 이 북한 상선의 NLL 침범 의도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해군참모총장 강동길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직접적인 원인은 NLL 무실화, 동시에 간접적인 원인은 일부 항해상 착오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종득 위원** 지금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되는 부분이 이번에 넘어온 선박은 NLL을 넘어온 뒤에 선박 자동식별장치의 국적을 중국으로 변경을 했어요. 알고 계시지요?

○**해군참모총장 강동길** 예, 맞습니다.

○**임종득 위원** 그다음에 오성흥기를 달았습니다. 이건 실수가 아니지요. 실수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지금 다시 한번 확인을 드리는 거고 이것은 의도된 침범으로 봐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해군참모총장 강동길** 맞습니다.

○**임종득 위원** 그러면 우리에게 NLL은 뭘니까, 우리 해군에게 NLL은 뭐예요?

○**해군참모총장 강동길** NLL은 우리의 영토와 같은 겁니다.

○**임종득 위원** 영토 맞지요?

○**해군참모총장 강동길** 예.

○**임종득 위원** 이 영토를 무실화하기 위한 의도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남남 갈등을 유발하기 위한 노력들을 수차례에 걸쳐서 지금까지 해 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NLL을 침범하는 거와 관련해서 우리 해군 차원에서는 북한의 실수다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이다.

그랬을 때 우리 해군들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대한 매뉴얼 부분들을 아주 엄중하게 다루고 훈련시켜야 되고 그래도 듣지 않는다면 절차에 의해서 대응하는 그런 정신교육이 필요하다는 강조를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군참모총장 강동길**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이번에 작전사령부 2함대에서 한 조치는 정당했고 아주 잘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종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위원** 공군총장님!

○**공군참모총장 손석락** 공군총장입니다.

○**김병주 위원** 지난 3월 7일 날 포천 민가에 전투기 폭탄 여덟 발 오폭해서 많은 피해가 난 거 알고 있지요?

○**공군참모총장 손석락** 예, 알고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 지역에서 얘기를 들어 보니까 아직 조치가 미온적인 게 많아요. 피해자 그 당시 중상 2명에 경상 18명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정신적인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공군참모총장 손석락** 예, 그렇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런데 이 치료비를 본인들이 지금 부담한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사실입니까?

○**공군참모총장 손석락** 지금 현재 보상이 다 완료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에 대한 추가적인 변상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김병주 위원** 그리고 피해지역을 어떤 행정단위로 하다 보니까, 폭탄의 위력이나 소리나 이거는 몇 km 반경 이걸로 해야 되는데 행정구역으로 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

가 일동면에 수입리, 화대리 등 3개 리가 유효거리 안에, 피해 거리 안에 드는데 피해지역에 들어가지 않아서 이 지역주민들이 여러 가지 피해에 대한 보상이나 이런 데서 제외돼 있다고 지금 파악을 했거든요.

○공군참모총장 손석락 지속적으로 해당되는 부분들은 파악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공군총장님이 이제 새로 취임하셨으니까 포천 가서 지역주민들 한번 간담회를 하시고 이런 애로사항들을 공군이 주도해서 국방부하고, 해당 관련 기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해서 좀 해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공군참모총장 손석락 잘 확인하고 조치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이것은 공군에 진짜 있어서는 안 될 과오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민간인이 갖고, 이것을 공군이 주도해서 끝까지 피해보상과 여러 가지 조치를 해야 된다고 봐요.

○공군참모총장 손석락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해군총장님, 이번에 국립정보자원관리원 리튬배터리 화재가 발생했는데 해군에서도 리튬배터리 쓰는 데가 있나요?

○해군참모총장 강동길 지금 대부분 무전원 전원장치에서 사용하고 있고 또 이동하는 이동용 그다음에 무전기 같은 경우에는 리튬 그리고 지금 KSS-III 잠수함 Batch-II 잠수함에도 리튬전지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6단계 안전장치가 돼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래서 지금 이것은 시간 관계상 육해공군 다 확인하고 싶은데, 다 해당이 되는 겁니까. 리튬배터리를 쓰는 데가 어딘지 또 어떤 장비인지 확인을 해서 이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군에서 대비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아까 박선원 위원 질의했듯이 케이직스(KJCCS)라든가 우리 통신망 각 군별로 다 있잖아요. 그걸 이중화돼서 실제 그런 사고가 났을 때 바로 백업이 될 수 있는지, 사실 군은 그렇게 만들어 왔잖아요.

○해군참모총장 강동길 예, 맞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러니까 그걸 다시 점검을 해서……

1분만 주고 끝낼게요.

○위원장 성일종 1분 더 드리십시오.

○김병주 위원 그래서 이 분야는 중요하니까 남의 일이라 생각하지 말고 여기에 대해서 철저히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군에서 지금 사고가 많이 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상담 능력이 간부들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군에서 사단장, 군단장 할 때는 상담사들이 연대별로 한 명 정도 있는데 지금도 연대별로 한 명 있지요, 상담사들이?

○육군참모총장직무대리 김규하 지금은 인원이 좀 더 늘어났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래서 상담자들이 턱없이 부족해서 제가 전 간부의 상담 능력을 향상시키자 해서 상담학 과목을 개설을 해서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사고가 급격히 줄더라고요, 병영문화도 좋으니. 그래서 각 군 본부는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해서 그런 근본적인 원인을 따져야지 장군단이 술선수범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걸 해 주시겠습니까?

○육군참모총장직무대리 김규하 예, 보완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병주 위원 해군부터 한마디씩 해 주세요.

○해군참모총장 강동길 지금 자살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사건·사고가 상당히 부족한 거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군도 찾아가는 상담 하고 있고 또 군에 있는 법사, 신부, 목사님도 격오지를 찾아가서 하는 상담을 하고 있는데 그러더라도 최근에 자살자들 보면 심리상담 결과 보통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상당히 식별하기는 어려우나, 그러나 상담을 통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고 좀 더 국방부와 협의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주 위원 이번에 해병대가 한번 얘기……

○해병대사령관 주일석 상담관 관련해서는 해병대에서는 굉장히 필요성을 지금 많이 느낍니다. 특히 격오지일수록, 육군 GOP도 비슷할 것 같은데 특히 서북도서지역에 상담관들이 지금 채용이 안 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분야들을 현실적으로 많이, 어떤 금전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강이 안 되면 백령도, 대·소청도에, 연평도에 가서 사실 근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들을 저희들도 많이 관심을 갖고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주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대대급에 한 명 정도는 상담사가 있어야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그게 어려우면 간부들의 상담 능력 향상에 모든 군이 관심을 가져 줬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일중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선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선원 위원 아까 존경하는 한기호 위원님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오늘 각 군 총장님들이 국방위원회 처음 나오신 자리 아닙니까? 그래서 내란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습시다만 저희 당도 물론이고 대통령님께서도, 우리 군 지휘부 누구도, 현재 계신 지휘부 누구도 대한민국 군, 육군을 내란군으로 보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윤석열과 김용현 등과 작당해서 극소수가, 연루된 그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 군의 명예가 실추되고 우리 군이 스스로 고통을 받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도 내란을 막을 수 있는 이유를 정치인들이 잘해서 제 시간에 계엄을 해제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 와서 민주주의를 지키려고 싸웠던 우리 국민들과 707을 비롯해서 지휘관들의 명령에 소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했던 현장에 있었던 우리 군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당한 인식의 일치를 보았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가 비상계엄 할 일은 없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군이 정말 오늘부터 더욱 다시 태어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 가지 해군께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7~8월 달에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무래도 기후위기, 특히 올 여름 7월 달~8월 초 엄청 더웠지 않습니까? 그런 속에서 우리가 군이 에어컨 있는 데서 일하느냐 그런 말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군이 복무할 수 있는 환경은 어느 정도 보장을 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특히 해군함정 같은 경우 여름에 땀별 속에서 그 안에서 근무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적어도 군정을 책임지고 있는 총장께서 소요 제기를 할 수 있으면 과감하게 해 주십시오.

○해군참모총장 강동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원 위원 그리고 육군께도 질문을 드리는데요.

저희 지역의 일이기도 합니다만 군에서 보급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총장님?

○육군참모총장직무대리 김규하 말 안 해도 너무 중요한 사안입니다.

○박선원 위원 그렇지요. 보급이 없으면 싸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육군참모총장직무대리 김규하 그렇습니다.

○박선원 위원 우리나라에 핵심적인 보급단이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육군참모총장직무대리 김규하 예.

○박선원 위원 그 숫자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저희 부평에도 제3보급단이 있는데 이번 여름에 이전이 장기 지연이 되니까 아무런 시설 보장 조치를 안 해 가지고 물이 다 쳐들어서 그래서 우리 자원들이 다 물에 젖고 해서 오히려 우리 군수품에 낭비와 훼손이 있었습니다.

1분만 주십시오. 마지막입니다.

○위원장 성일종 이미 드렸습니다.

○박선원 위원 그런데 올 여름의 그 이상기후 위기를 생각한다면, 지금 일제시대 조병창부터 미군이 쓰던 거기에 그냥 그대로 있거든요. 정말 소중한 우리 보급품, 군수물자들 그대로 쌓여 있어요. 그런데 이번처럼 비가 오듯이 눈이 오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부대 이전이 장기 지연됨으로써 오히려 시설 노후화를 방치하게 된 그런 상황에서 입게 될 피해를 사전에 막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군수참모부장님도 오셨는데 각 보급단, 부평 제3보급단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각 부대의, 각 지역의 기지, 부대를 이전하기로 된 것이 장기 지연됨으로써 시설이 아주 노후화된 그런 쪽에 대해서 총장님들께서 살펴보았으면 하는 바람과 당부를 드립니다.

○육군참모총장직무대리 김규하 예, 관심 가지고 잘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승찬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 더 있으신가요?

부승찬 위원님 질의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승찬 위원 여기 계신 총장님이나 사령관님은 헌법 조문을 읽습니까? 왜 군의 신성한 의무가 5조에 들어간지 아십니까? 모르시지요? 그래서 이 내란 논쟁에서 내란이라고 말을 못 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헌법을 읽어 보시면 내란이 뭔지 나와 있잖아요.

근대 입헌주의의 핵심 원리는 폭력의 합법화입니다. 이것을 좀혀 들어가면 헌법 5조에 군의 신성한 의무가 명시돼 있습니다. 거기에 군은 딱 두 가지 임무를 주고 있습니다, 외부 위협에 대응하는 것 그다음에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것. 이게 폭력을 사용해도 합법적으로 사용해도 된다는 거예요. 다만 대외를 향한 폭력에 대해서 합법적인 거예요. 이번 12·3같이 대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는 것은 쿠데타예요. 헌법에 명시하고 있어요. 쿠데타예요, 내란이고. 그런 건데 그것을 이해 못 해요.

그다음에 말 그대로 국내 국민에 대한, 내치에 대한 폭력의 합법화는 검찰과 경찰에게 주어졌어요. 심리전은 어디에 주어져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부 그다음에 국정홍보처 이런 데 주어져 있어요.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 근대 입헌주의가 지향하는 바예요. 그렇기 때문에 군한테 폭력이라는 네거티브한 개념을 사용하면서도 정당하고 합법화를 인정하는 건 외부 위협에 대해서 막아 달라는 의미예요. 민을 대의하는 국회에 군이 들어왔어, 이건 내란이고 쿠데타예요. 군복을 입고 계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못 하면 헌법체계는 무너지고 폭력의 합법화, 폭력의 국가화는 끝나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이 생길 거예요.

무죄 추정의 원칙, 옳습니다. 무죄 추정할 때까지, 법원에서 2년, 3년, 4년, 5년 걸려서 무죄가 나올 때까지 군이 대민을 향해서 총부리를 겨누는 것은 무죄라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헌법 정신이고 입헌주의의 핵심 원리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여기 계신 총장님들도 그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우리 군에 헌법을, 이런 것들을 교육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성일종 부승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회의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3군 총장님과 또 해병대사령관을 불러서, 그동안 군에서 안전사고를 비롯한 여러 많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굉장히 불안해하시기 때문에 오늘 현안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여러 사항들을 참고하셔서 다시는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제시한 의견들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군에서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부승찬 위원님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관련 기관에서는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을 해서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 및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각 군 참모총장님과 해병대사령관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4분 산회)

.....

일반증인 및 참고인 명단

일반증인(3인)

성명	직업	요구 위원	출석일 및 관련 피감기관	비고
황성혜	구글코리아 부사장	황명선	10. 13(월) 국방부	
강호순	JK컨벤션 웨딩 대표	부승찬	10. 23.(목) 해군본부	
탁홍남	해군호텔W웨딩홀 대표			

참고인(1인)

성명	직업	요구 위원	출석일 및 관련 피감기관	비고
심송보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원	유용원	10. 13.(월) 국방부	

○출석 위원(13인)

강대식 강선영 김병기 김병주 박선원 백선희 부승찬 성일중 임종득 정청래
한기호 황명선 황 희

○청가 위원(2인)

김민석 유용원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전문위원 서덕교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육군본부

참모총장직무대리 김규하
군수참모부장 최순건
인사참모부장 김진익
전투준비안전단장 전창영
군사경찰실장직무대리 인치열

해군본부

참모총장 강동길
인사참모부장 박태규
군수참모부장 신유찬
정책실장 박순식

공군본부

참모총장 손석락
인사참모부장 주성규
정보작전참모부장 황영식
정책실장 구상모

해병대사령부

사령관 주일석

정책실장 이동향

인사근무참모처장 현우식

【보고사항】

○의안 회부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22. 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57)

9월 23일 회부됨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23. 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98)

9월 24일 회부됨

○보고서 제출

2025년도 법률안 국회제출 수정계획

(2024. 9. 25. 정부 제출)